VIS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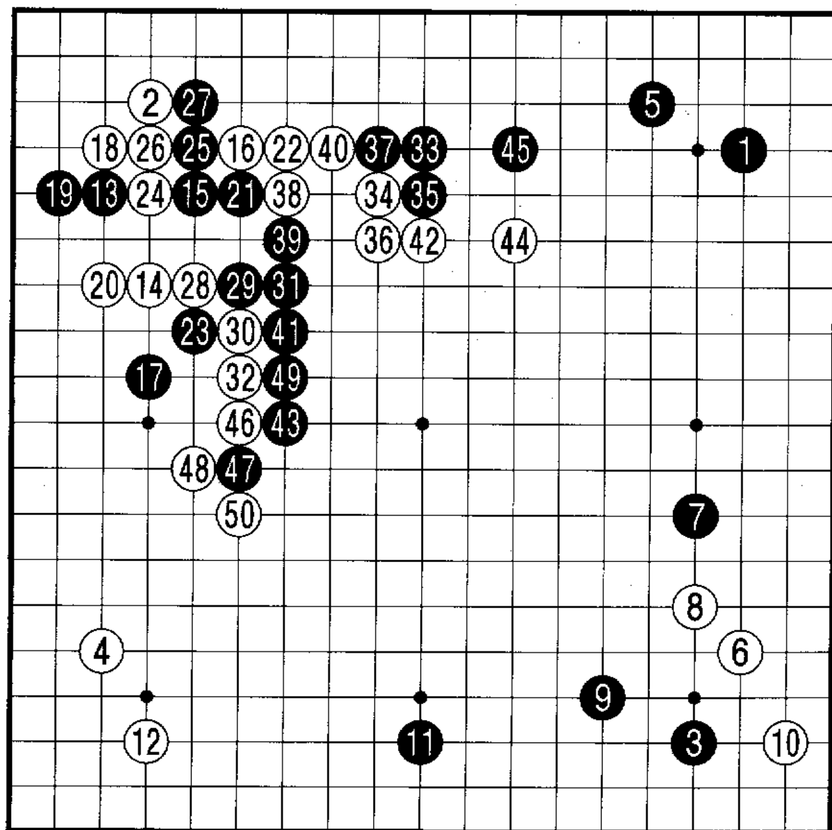
LANZAROTE Caliente.com



명인전 도전 5번기 제4국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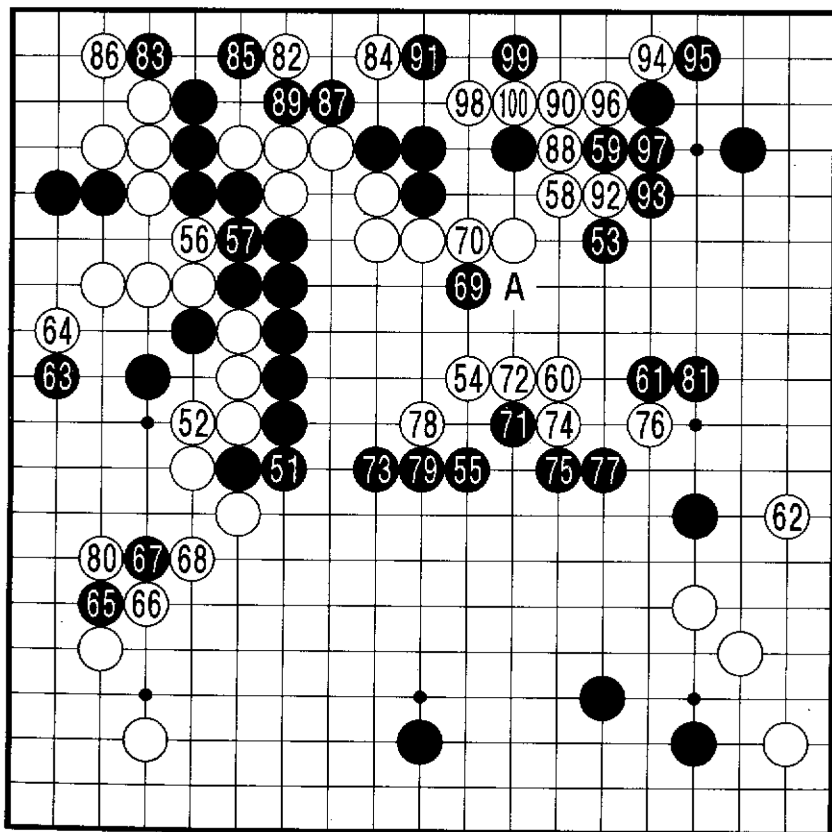
백20이 정석에 없는 강수. 백28 · 30
으로 반격해서는 팽팽한 형세이다.



백 二단 서봉수
흑 八단 조남철
1972. 5. 5 대원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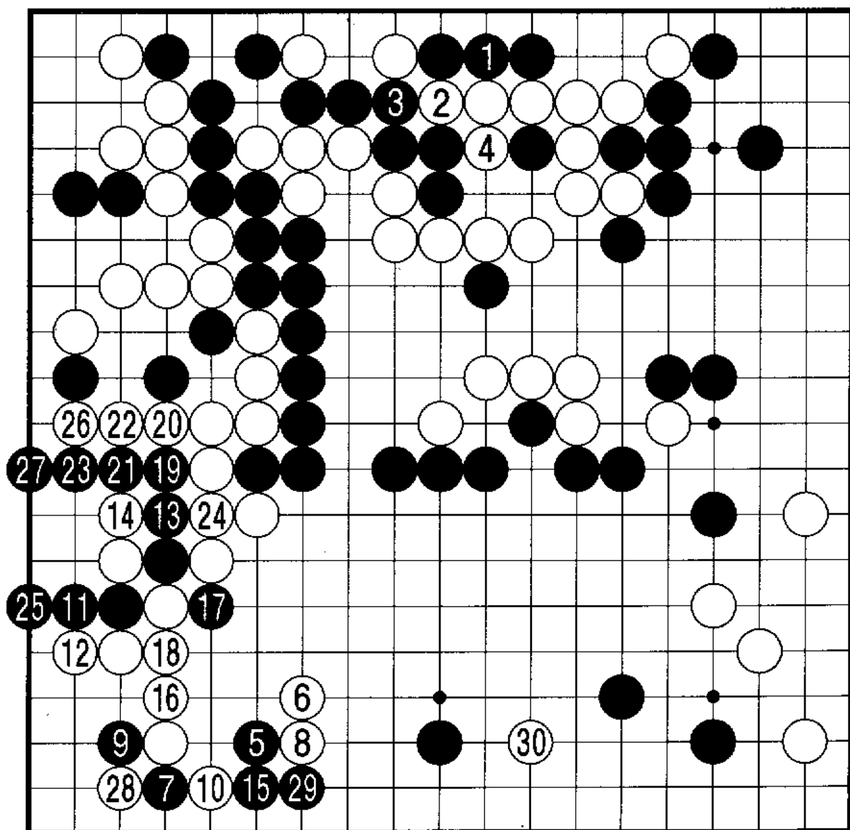
제2보(51~100)

백62가 상대의 의표를 찌른 일착. 흑73이 문제의 한수로 패착이다. 흑73으로는 A에 나가 끊는 것이 강수이다. 백이 선수로 중앙을 처리하고 80으로 지켜서는 실리의 균형이 확연하게 깨졌다.



제3보(10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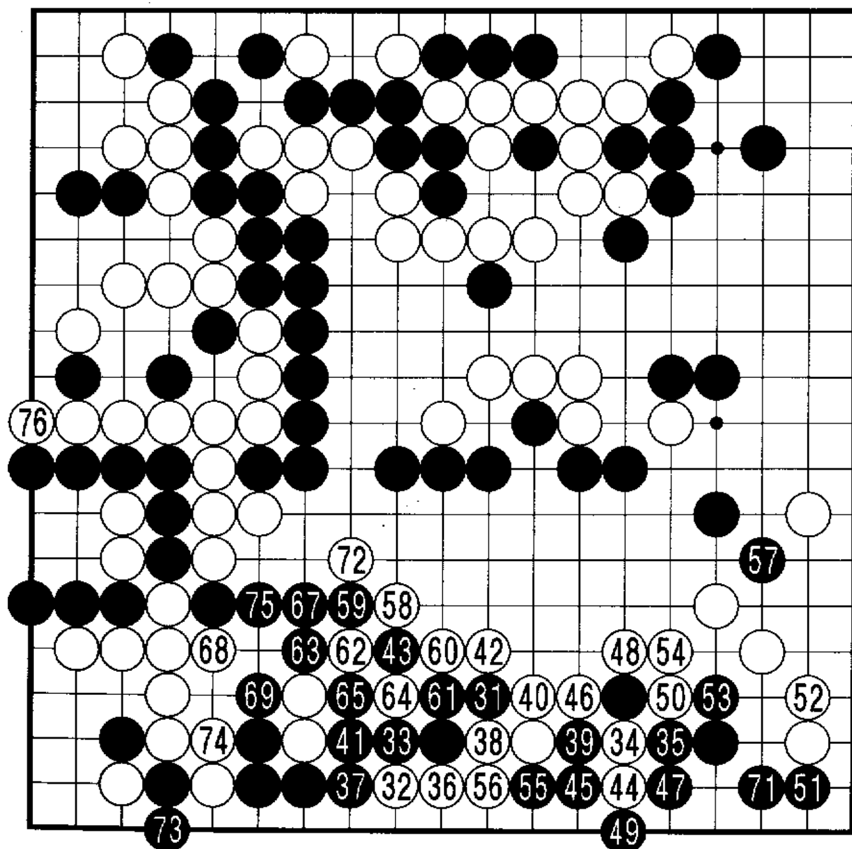
백8은 평범하게 귀에서 젖히는 정도로도 충분한 형세이다. 흑19 때 백20이 대실착. 백20으로는 24에 잇는 한수였다. 흑25 이하 27까지 좌변에서 수가 나서는 또다시 형세는 미궁속으로 빠져든 모습이다. 흑29는 마지막 승부수인데 백30이 과감한 침공이다.



제4보(131~176)

흑31이 상대에게 리듬을 제공한 대실착. 백32를 허용해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흑33 때 백34가 호착으로 40까지 포위망을 뚫어서는 승부가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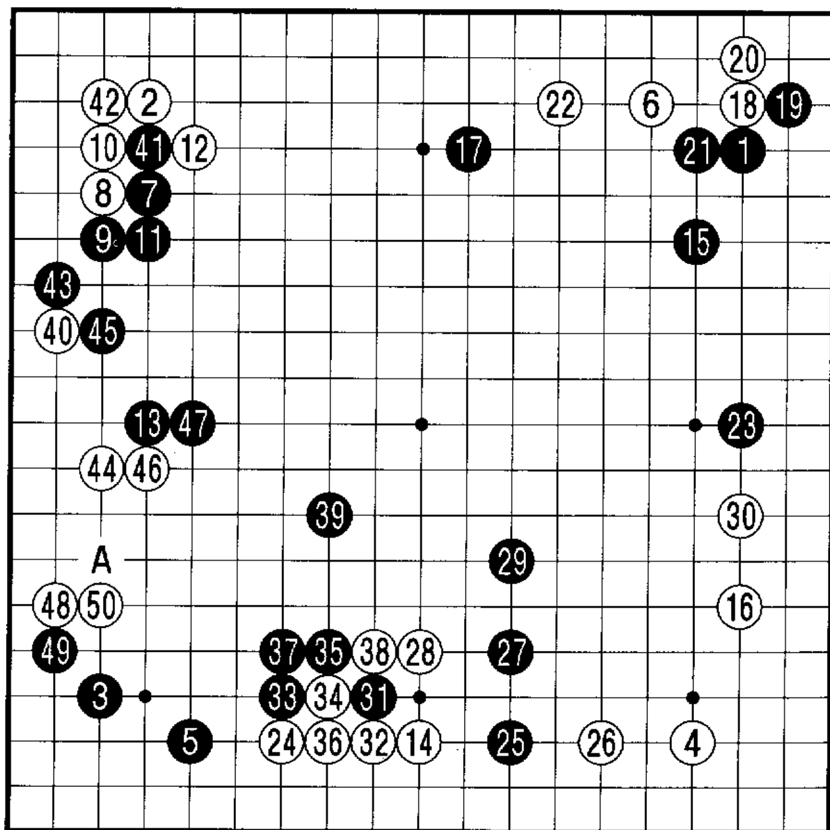
176수 끝, 백 불계승



명인전 도전5번기 제3국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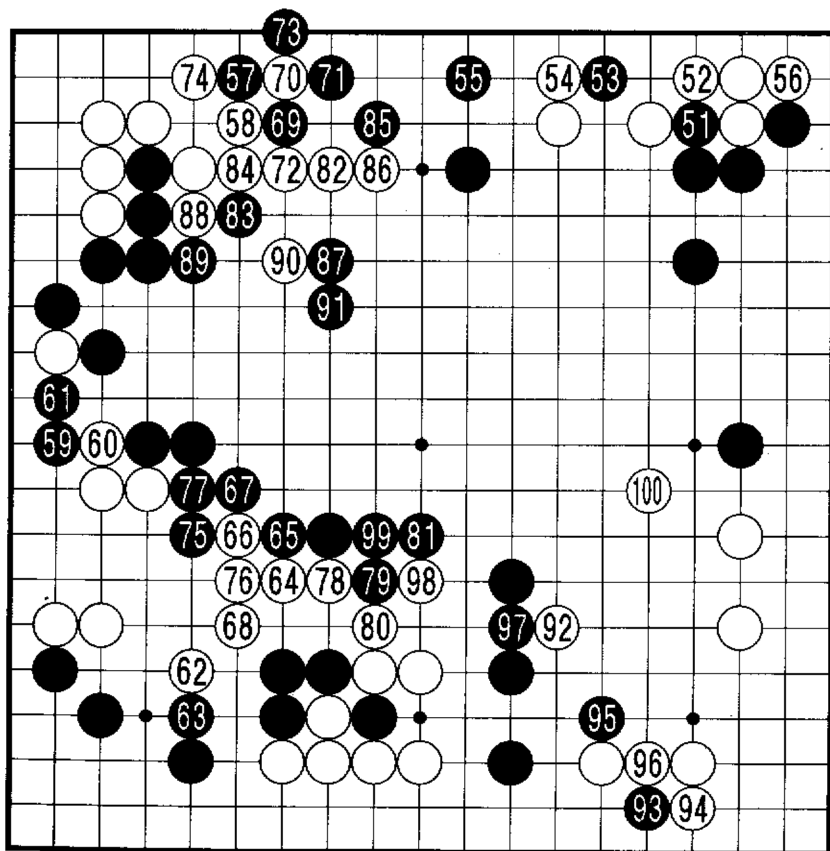
흑39까지 흑이 활발한 포석이다. 백40은 적절한 침입. 백44 때 흑45가 실착으로 A에 다가설 곳이다. 백46·48로 안정해서는 백의 침입이 성공을 거둔 모습이다.



흑 五단 서봉수
백 六단 조훈현
1974. 7. 3 대원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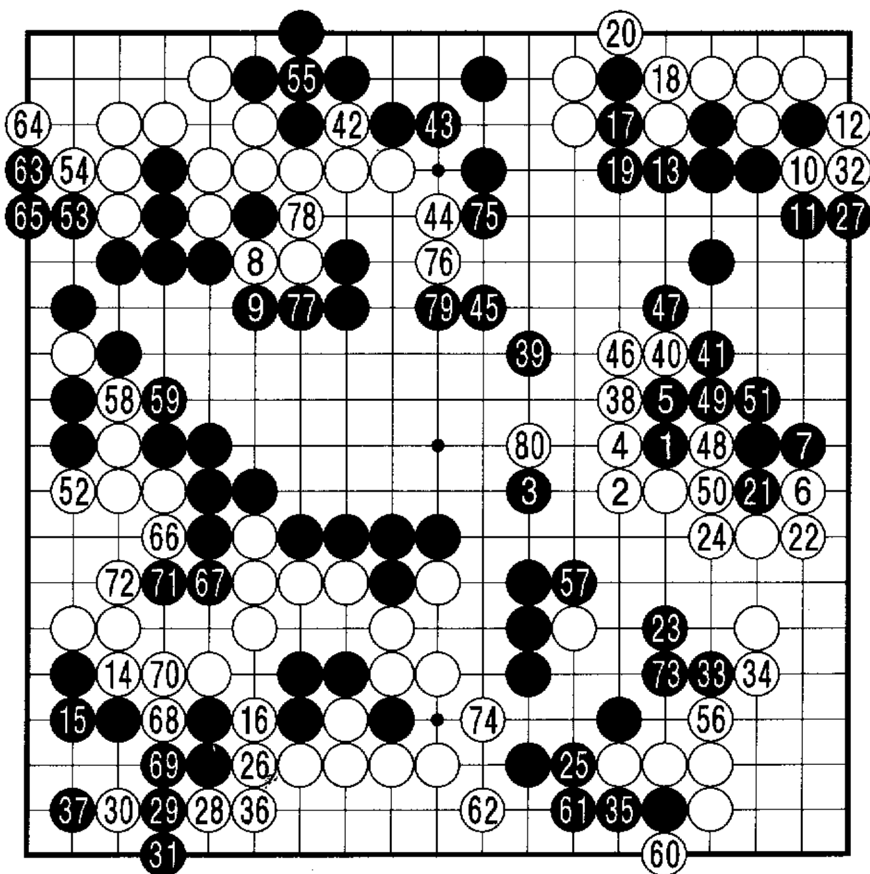
제2보(51~100)

흑55는 백56과 교환되어 실리상 손해이다. 백68까지 실리의 균형이 깨진 모습이다. 백72를 선수한 후 74로 막아서는 백의 필승지세이다. 흑85 때 백86이 실착. 흑87을 둘 수 있어서는 흑도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백86으로 87로 한칸 뛰었으면 백이 알기 쉬웠다.



제3보(101~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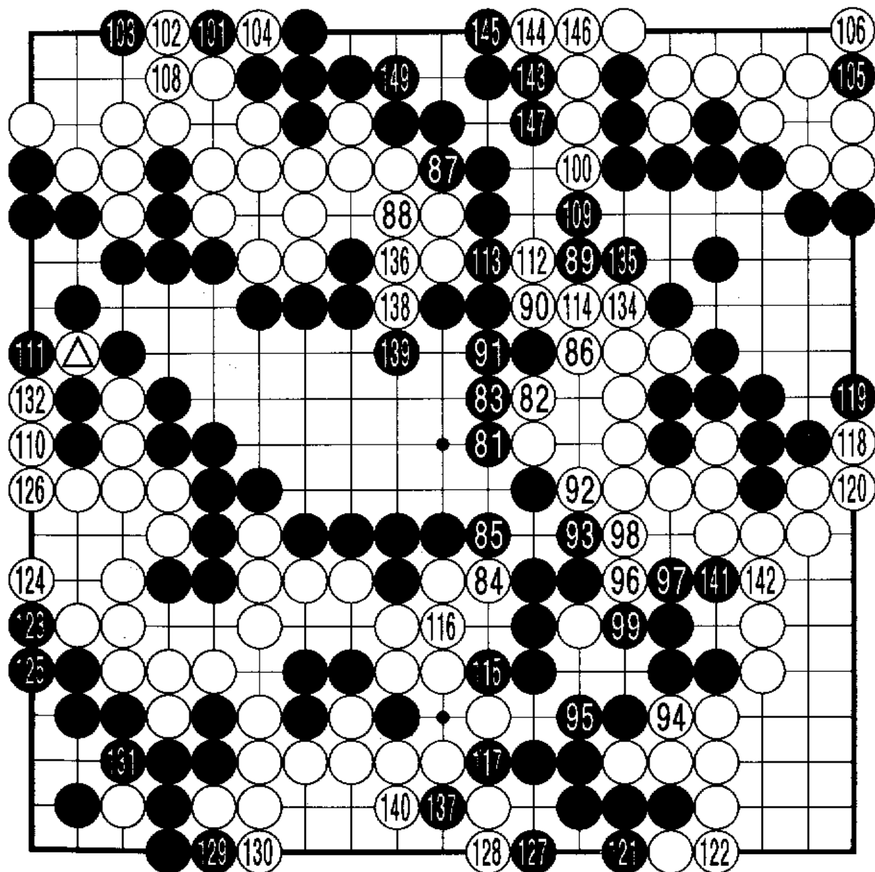
흑1은 승부수의 의미가 짙다. 백2로는 4의 곳이 정수이다. 백26은 27의 곳에 젖히는 것이 옳다. 흑39까지 흑이 많이 따라붙은 모습이다. 흑75는 집이 안되는 곳을 둔 실착이다. 흑75로는 76에 붙일 곳이다.



제4보(181~250)

백112가 패착. 백112로는 117의 곳에 두는 것이 정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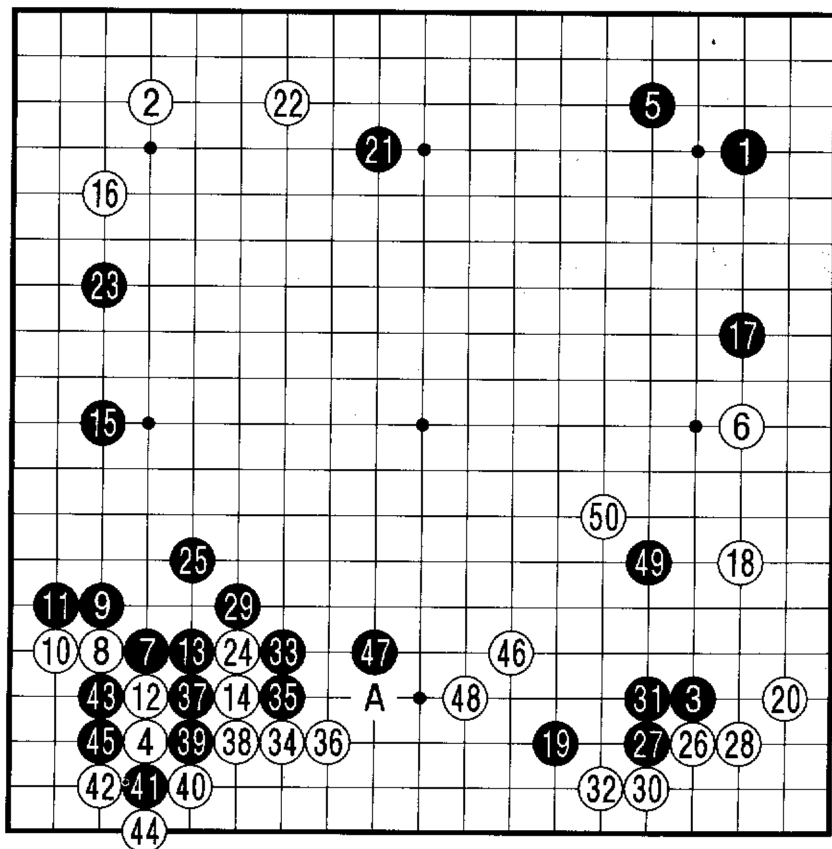
250수 끝, 흑 반집승



명인전 도전 제4국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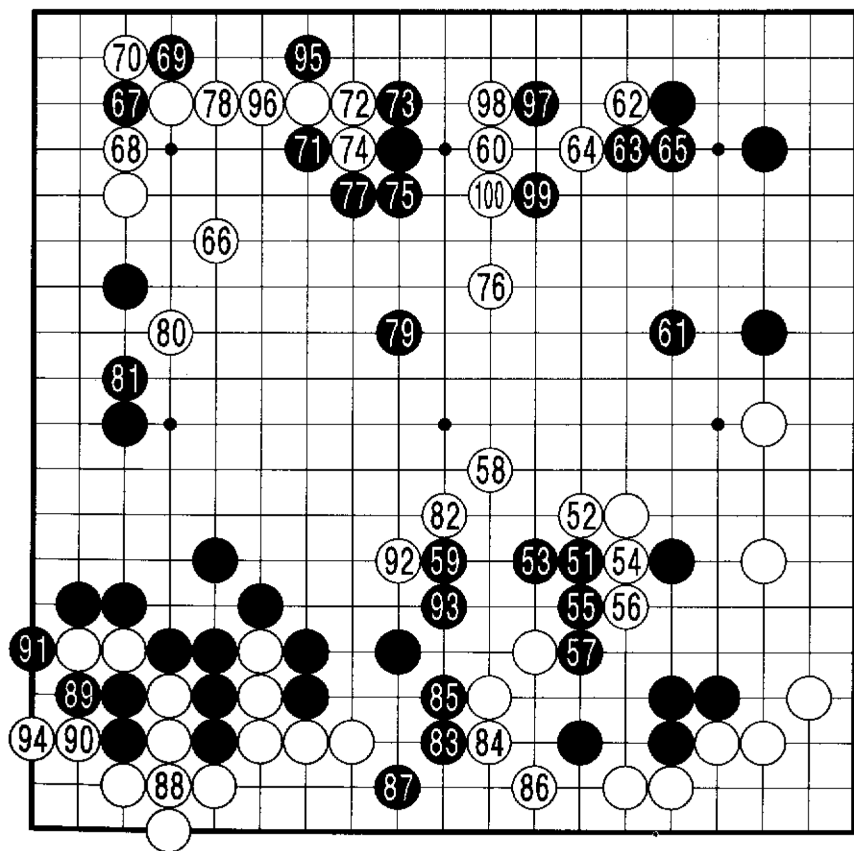
백30 때 흑31이 완착으로 32로 막을 곳이다. 흑35는 백36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문제수이다. 백46까지 선공을 당해서는 흑이 쫓기는 형태이다. 흑35로는 A로 유연하게 두는 것이 좋았다. 흑47도 백48을 유발시켜 악수이다. 흑49 때 백50이 강수이다.



백 七단 조훈현
흑 六단 서봉수
1978. 3. 27 뉴스카이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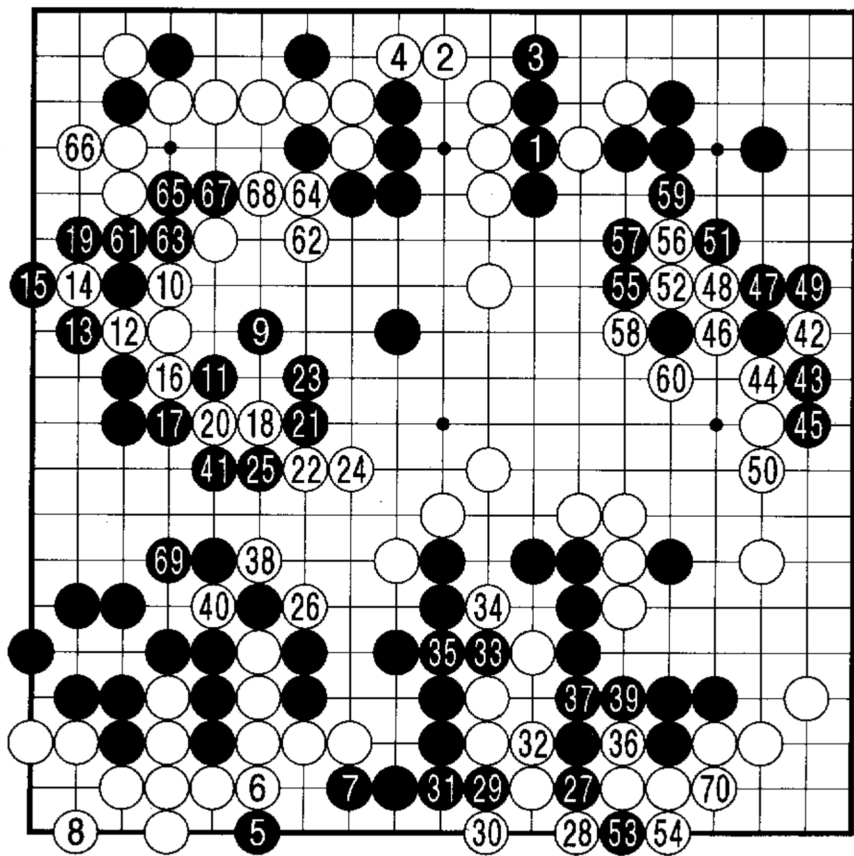
제2보(51~100)

흑51이 실착으로 흑55의 빈삼각이 빼아프다. 백60까지 백이 활발한 국면이다. 흑67 때 백68은 나약한 응수로 69에 내려설 곳이다. 백72 때 흑73이 과수로 백74에 대해 77의 곳을 바로 막을 수 없어서는 흑이 곤란해졌다. 흑73은 74의 곳에 이을 곳이다. 그러나 백76이 소극적인 처신으로 흑이 77을 선수하고 79로 뛰어나와서는 형세가 다소 풀린 모습이다. 백76은 당연히 77로 뚫을 곳이다.



제3보(101~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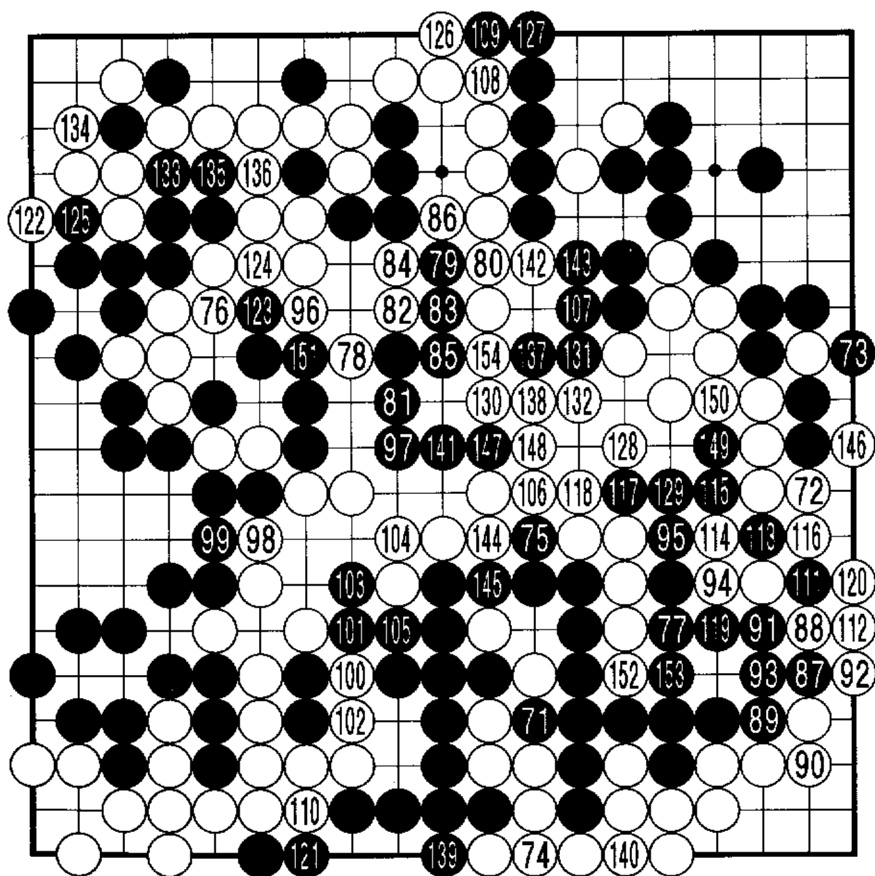
백18이 대변화의 시발점. 흑19로 외면한 것이 예리한 수로 백20에는 흑21의 타개책이 준비되어 있다. 흑25까지 수습된 형태인데 백26으로 끊겨 이번엔 하변 대마가 위험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하 흑39까지 더이상의 공격이 불가능한 모습. 백48까지 백이 흑진을 뚫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흑이 51 이하 59까지 선수한 후 61의 곳에 손을 돌려서는 흑의 우세로 반전된 모습이다.



제4보(171~254)

흑69가 최후의 큰 곳으로 흑승이 결정된 모습이다. 백78이 맥점이지만 흑도 87 이하를 선수할 수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흑111·113은 멋진 끝내기 수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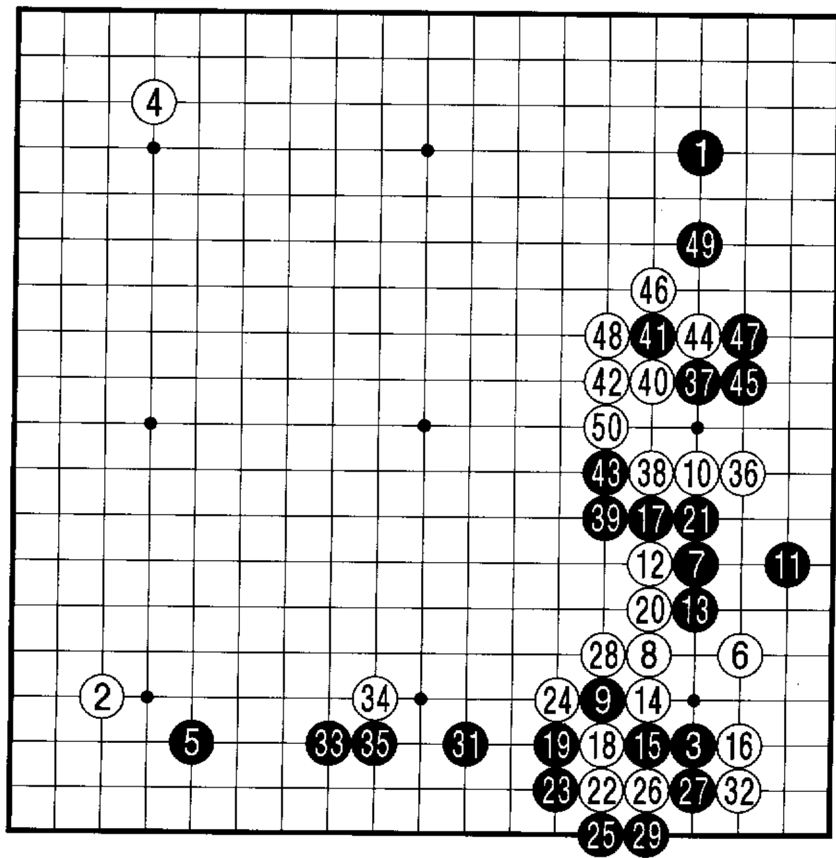
254수 끝, 흑 3집반승



국기전 도전5번기 제5국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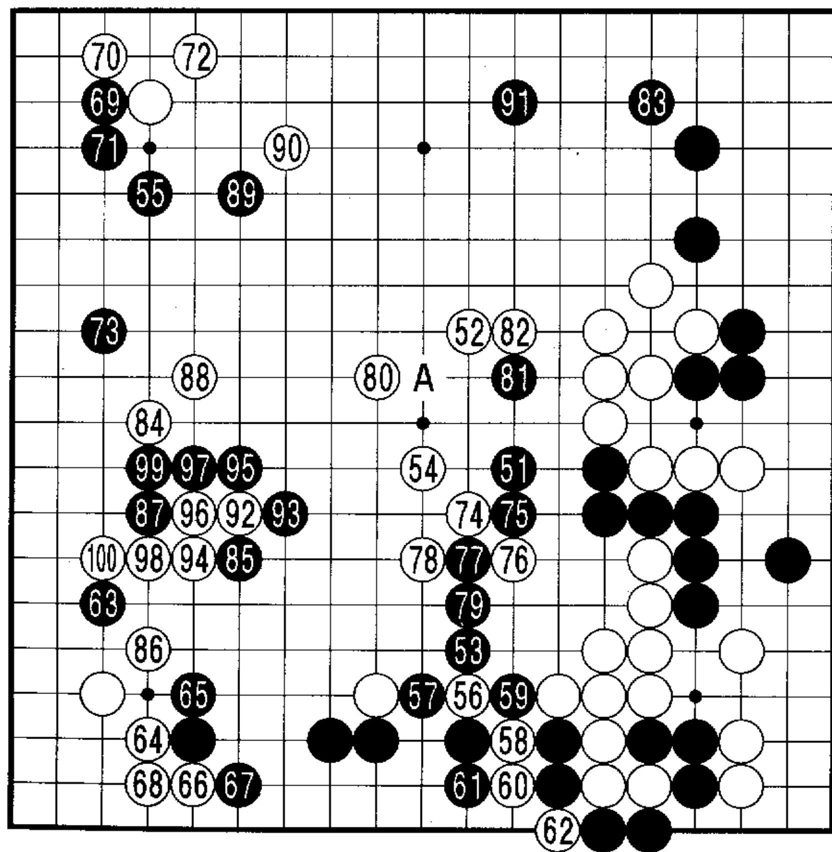
흑37은 44로 협공할 자리. 백38은 당연한데 백40·42가 시기상조이다. 백40으로는 43으로 한번 더 밀 곳. 이하 백48까지 흑 한점을 빵따냈으나 백의 세력에 비해 흑의 실리가 낫다.



제2보(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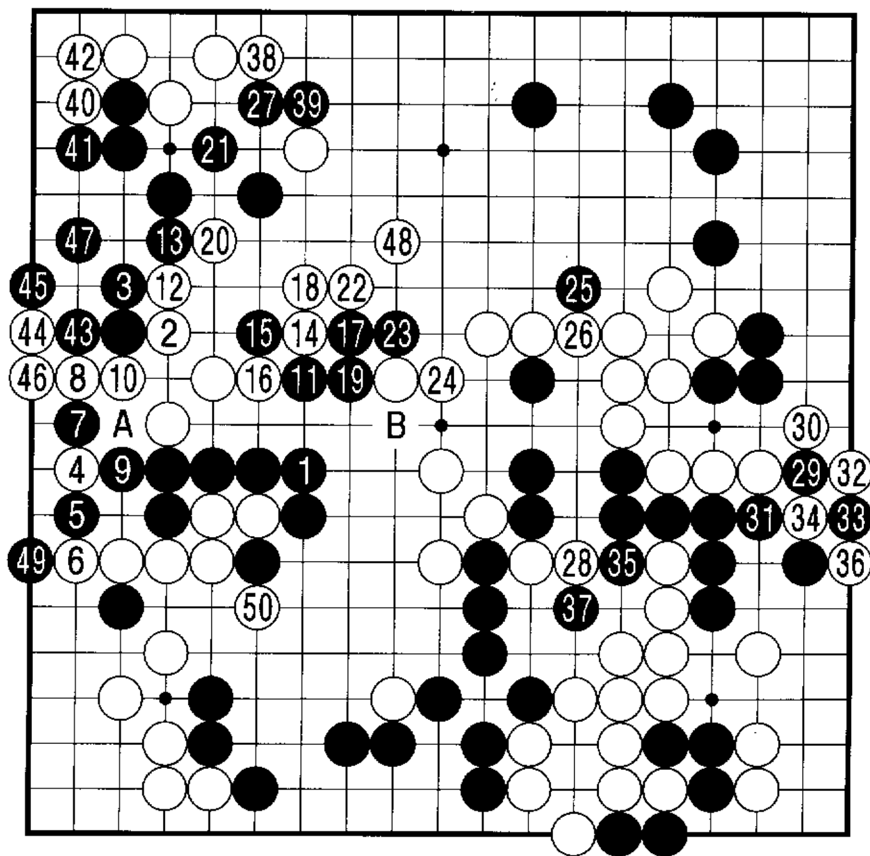
백 七단 서봉수
흑 九단 조훈현
1981. 4. 11 한국기원

흑53은 방향착오로 54로 뛸 자리이다. 백54가 통렬한 공격의 급소. 흑55는 조九단 특유의 발빠른 행마인데 백56 · 58이 연이은 맥점이다. 그러나 이하 백62까지 포획한 흑돌은 폐석에 가까워 흑으로선 불만없는 모습. 백80이 느슨한 일착으로 A에 한칸 뛸 곳이다. 흑83이 실리상의 요점으로 흑이 우세를 확립한 모습이다. 백92는 불리를 의식한 승부수. 흑93은 간명을 기한 것인데 이하 백100까지 백이 대단한 전과를 올린 결과이다.



제3보(10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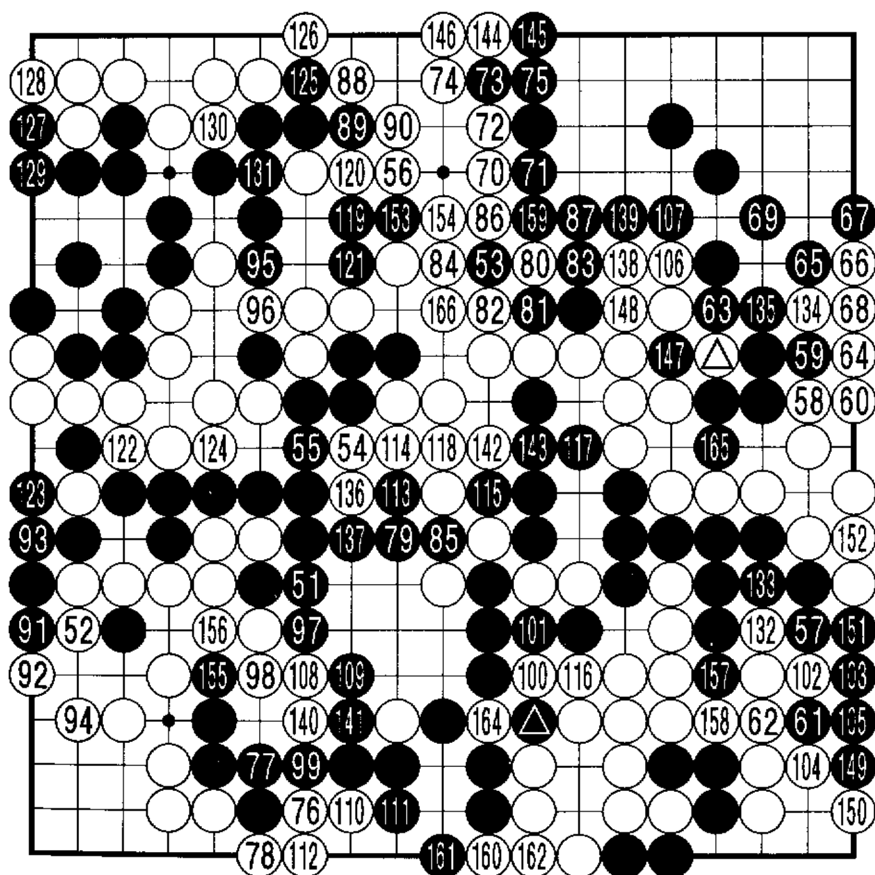
흑1이 문제수. 흑1로는 A에 넘을 곳이다. 백10까지 좌변 백돌은 탄력이 붙어 공격이 쉽지 않는 모습이다. 백28은 시기상조의 공격. 흑29 이하 33은 예정된 활로인데 백34 때 흑35가 패의 크기를 간과한 패착이다. 백36으로 때려내서는 백이 우세를 확립한 결과이다. 흑35로는 B에 젖히는 팻감을 쓸 곳이다.



제4보(151~271)

전보의 패싸움에서 흑이 큰 손해를 초래하는 바람에 승부가 결정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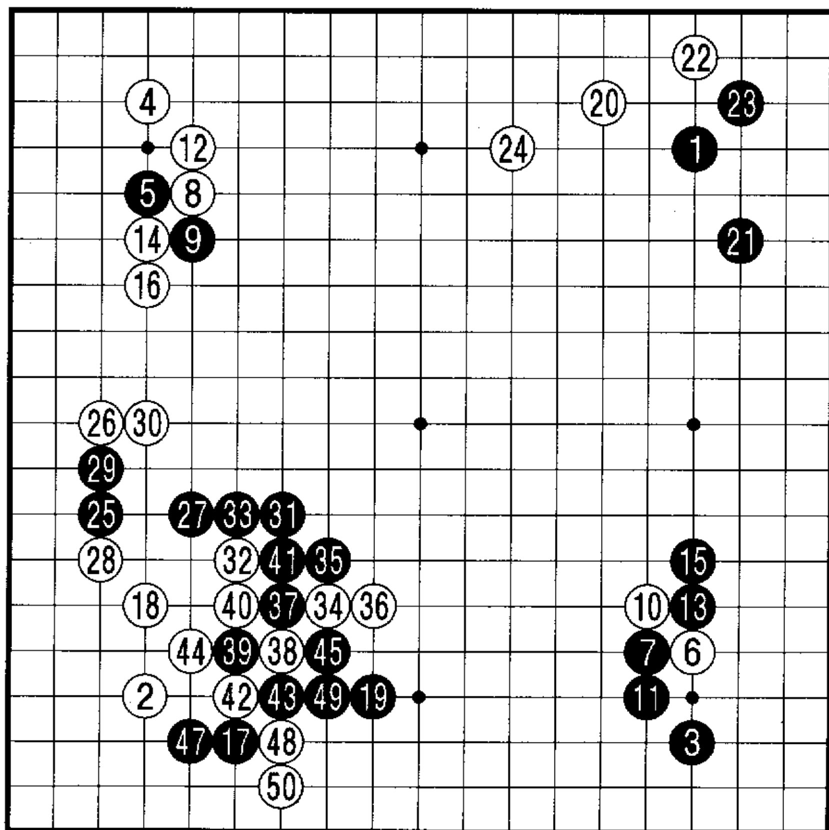
271수 끝, 백 4집반승



왕위전 도전5번기 제4국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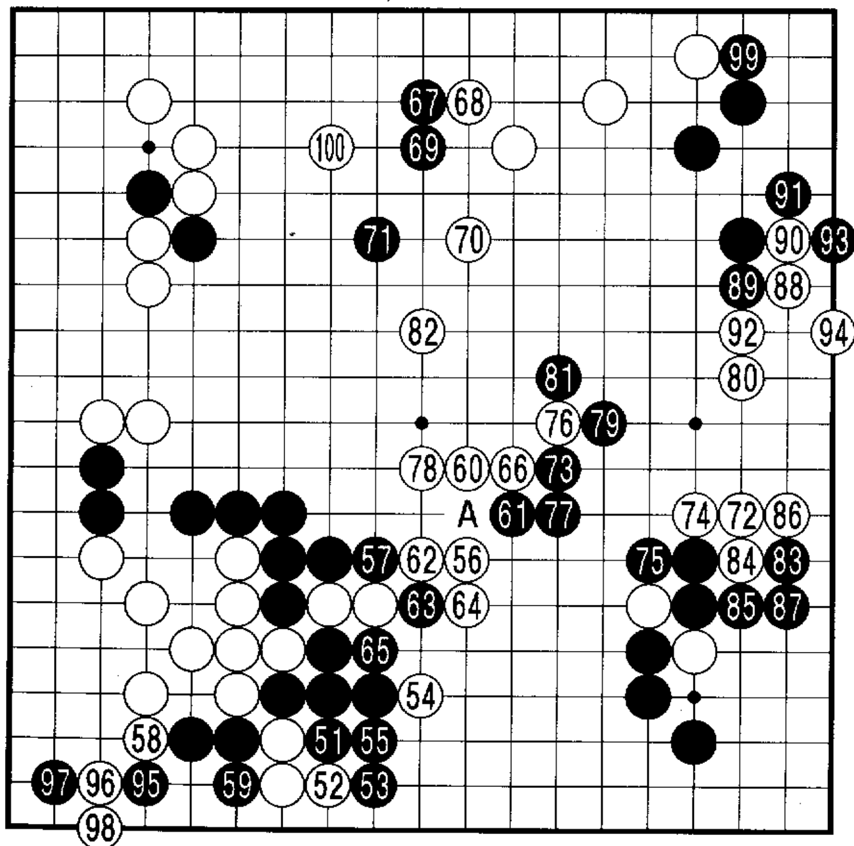
백32·34는 경쾌한 행마이나 사실은 상당한 모험이다. 흑35 이하 39는 강력한 차단이다. 백40·42는 유일한 타개법이다.



백 七단 서봉수
흑 九단 조훈현
1981. 12. 12 한국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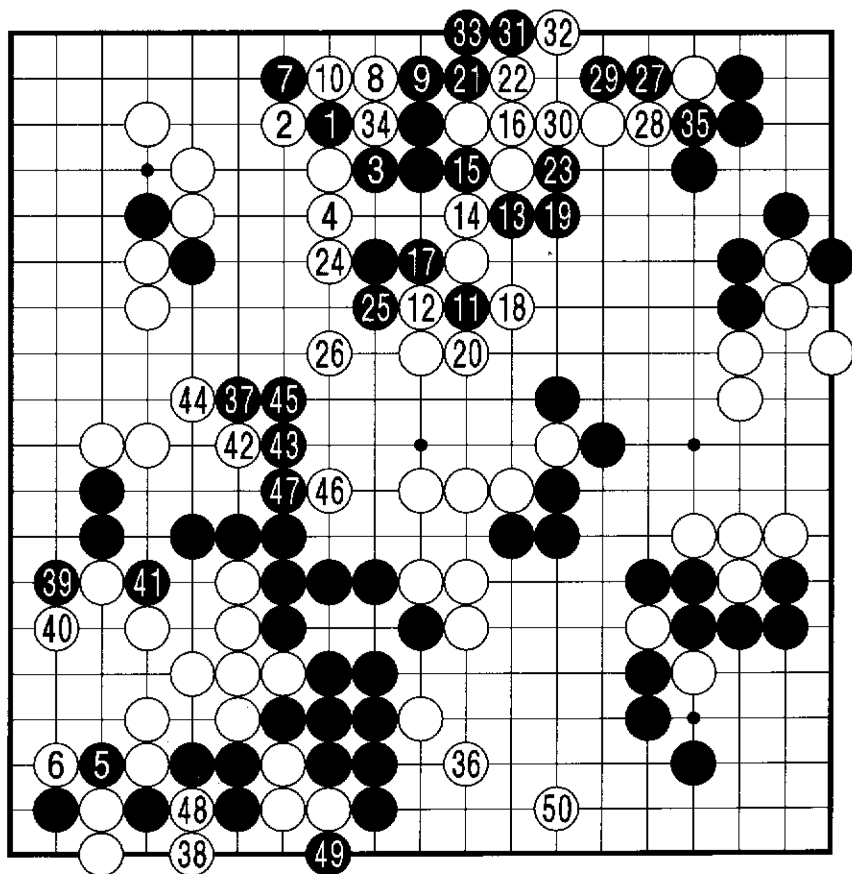
제2보(51~100)

백54가 날카로운 일착인데 흑55가 빈삼각의 묘수이다. 백58로는 60으로 뛰어둘 자리. 흑59로 60에 씌웠으면 백이 곤란했다. 백62는 과수로 단순히 이어둘 곳이다. 흑63이 상대의 과수를 응징못한 대악수로 무조건 A에 나가 끊을 곳이다. 이하 백66까지 진행되어서는 백이 절대 우세를 확립한 모습이다.



제3보(10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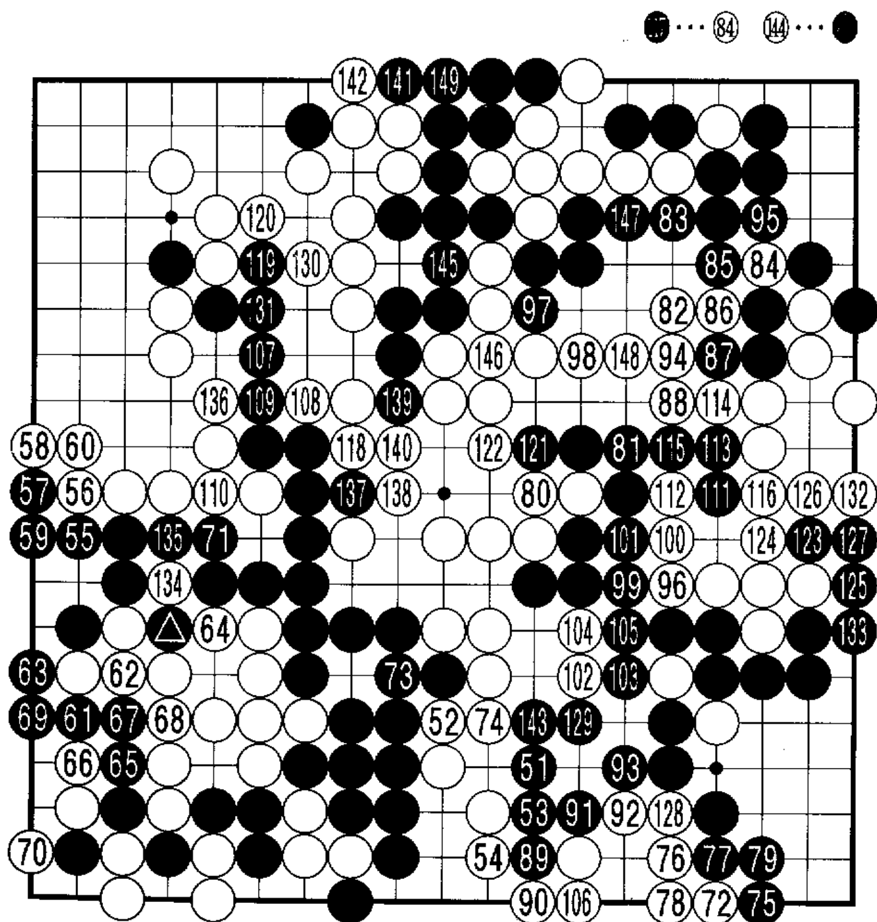
흑11·13은 승부수. 그러나 백18·20이 침착한 호착으로 이하 백26까지 진행되어서는 승부가 결정된 모습이다. 흑27 때 백28이 밀기지 않는 대착각. 흑31·33으로 진행되어서는 백 대마가 잡힌 모습이다. 백28로는 30으로 잇는 한수이다. 그러나 백36이 반상최대의 곳으로 아직까지도 백이 우세한 모습이다.



제4보(151~249)

백64는 흑71과 교환되어 1집 이상 손해다.

249수 끝, 백 3집반승



기왕전 도전 7번기 제4국

제1보(1~50)

흑21은 백22로 잡게 해서 의문이다. 흑27 또한 상대의 반발을 부른 과수. 백28·30으로 흑이 어려운 싸움이다. 흑43이 패착이나 다름없는 수. 흑43으로는 45에 두는 것이 좋았다. 백48이 흑의 실수를 추궁하는 시발점이다.

백 九단 조훈현
흑 七단 서봉수
1982. 10. 14 한국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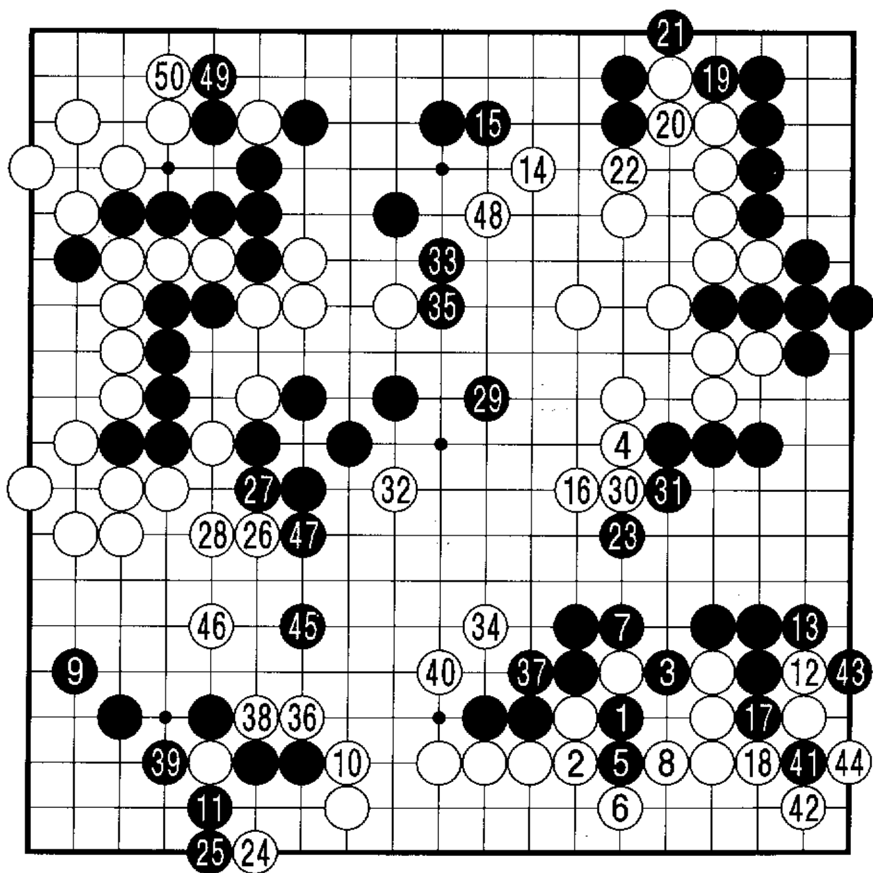
제2보(51~100)

백58 이하 62는 중앙을 의식한 처신. 백64는 65의 곳에 굳히는 것이 크다. 백68로는 A에 막을 곳. 흑71까지 균형을 이룬 모습이다. 백72 때 흑73이 너무 웅크린 수로 백74를 허용해서는 또다시 백의 우세로 돌변했다. 백100은 백B, 흑C를 선수한 후 두는 것이 수순이다.

91 … 84

제3보(10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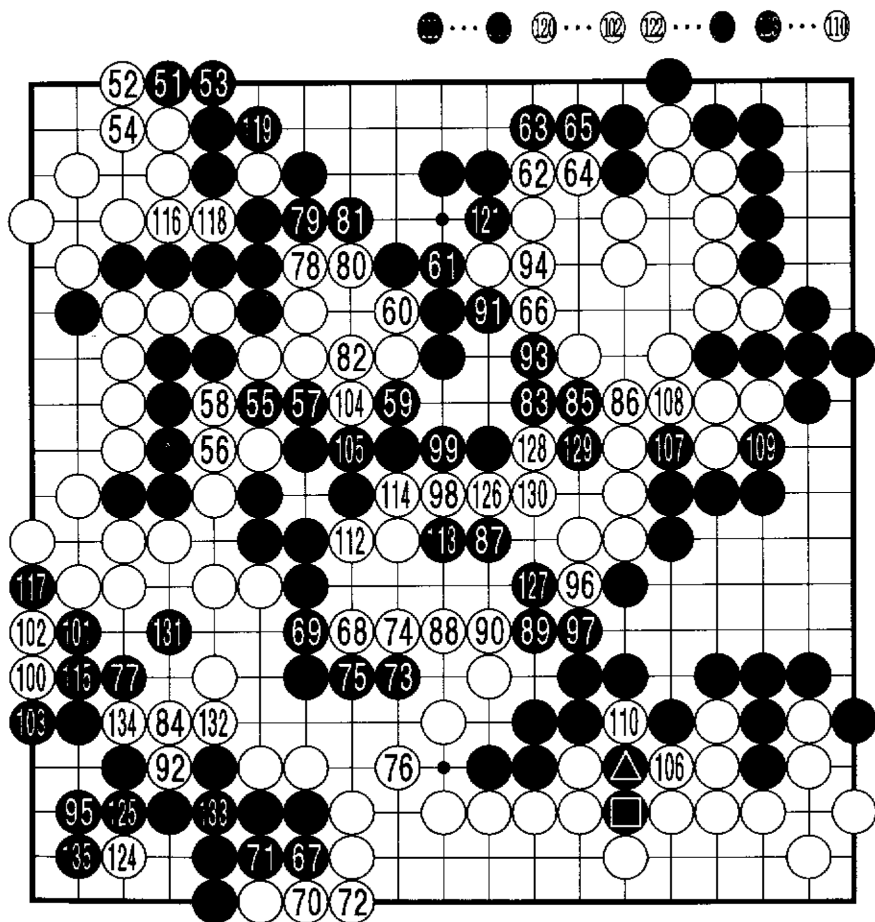
흑1·3이 백의 실수를 추궁하는 좋은 수순. 백16으로는 그냥 30의 곳에 뻗는 것이 정착이다. 백48이 최후의 패착. 백48로 49에 젖혀 역끝내기를 했으면 백승이었다.



제4보(151~235)

흑51·53이 통렬한 선수끝내기로 아슬아슬하게 흑의 반집승이 굳어지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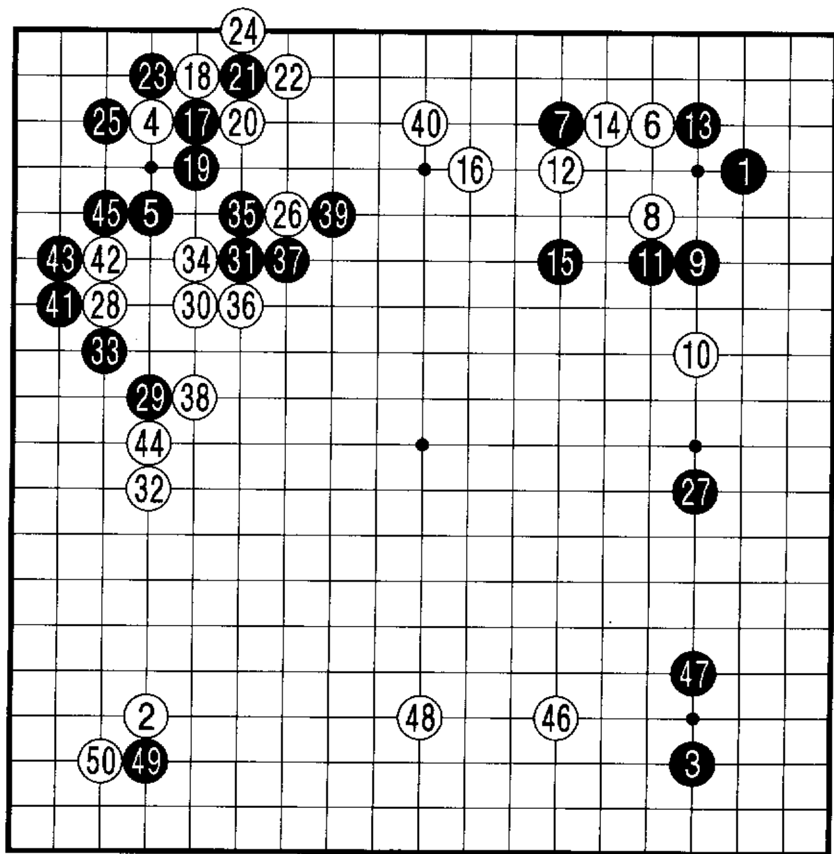
235수 끝, 흑 반집승



명인전 도전 5번기 제3국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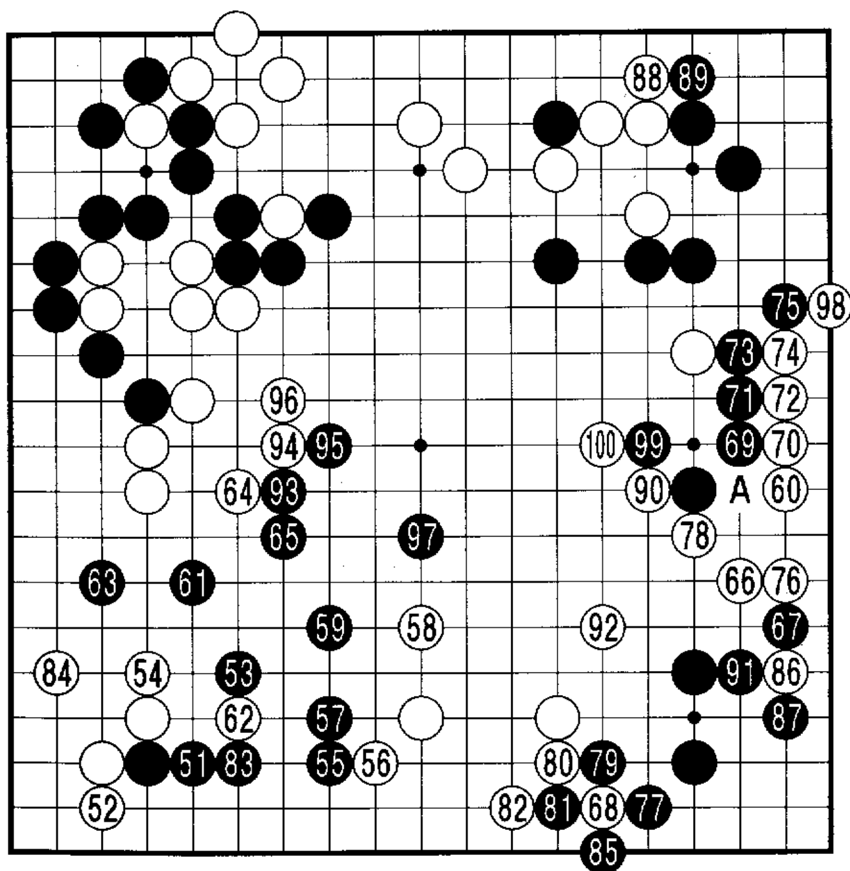
흑13·15는 적절한 변신이다. 백26은 생략할 수 없는 요소점인데 흑27이 절호점이라 흑이 포석에서 성공한 모습이다. 백32 때 흑33이 날카로운 대응이다. 흑45까지 흑 호조의 흐름이다.



백 九단 조훈현
흑 七단 서봉수
1983. 9. 23 올림피아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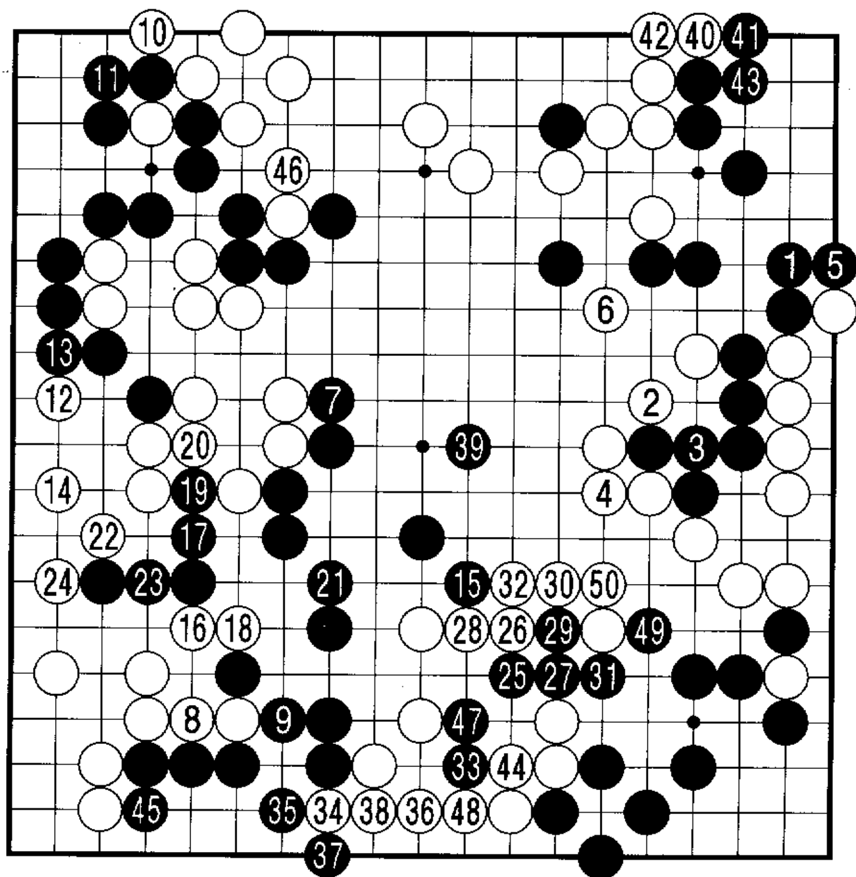
제2보(51~100)

흑59는 유리한 국면이라 자중한 것. 흑61은 A에 치받는 것이 무난했다. 흑93·95는 간명을 기한 것. 그러나 흑97은 너무 자중한 수로 백98의 역습이 날카롭다.



제3보(10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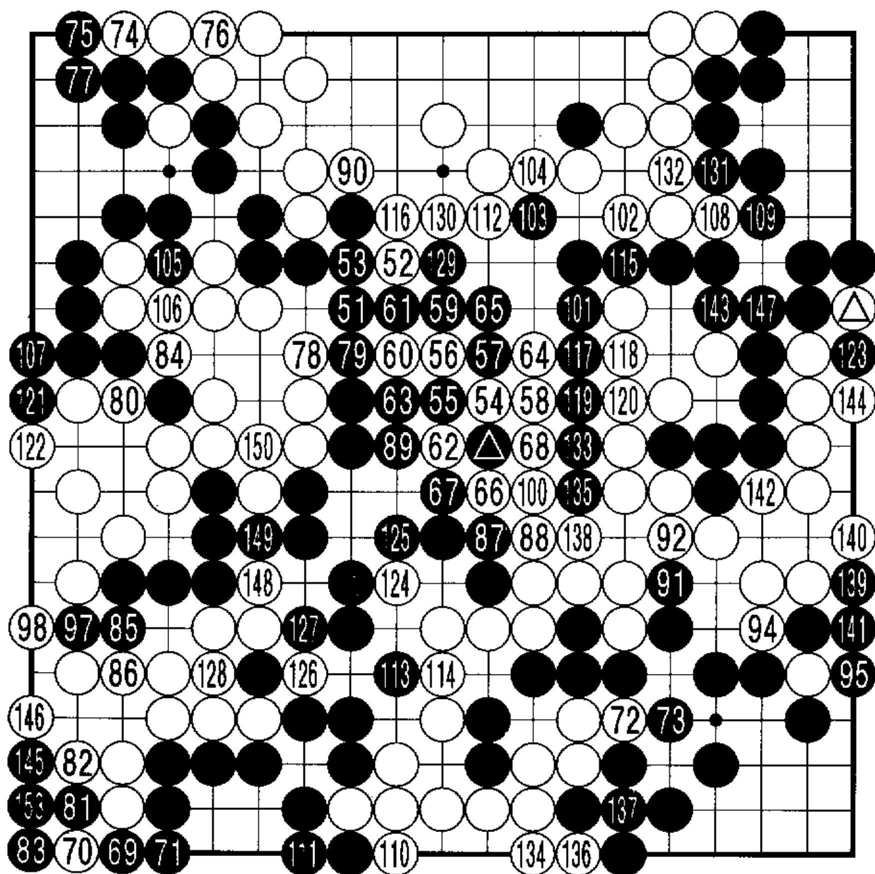
백16이 실착. 이 수로는 23에 끼우는 것이 맥점이다. 흑25 때 백26은 세불리를 의식하고 변화를 구한 것인데 흑27이 침착한 호착이라 별무신통인 모습이다. 흑39는 느슨한 수로 44의 곳을 끊어 잡을 곳이다. 흑45로 막아서는 흑의 승리가 굳어진 느낌이다.



제4보(151~255)

백54·56은 마지막 몸부림이나 이득은 없다. 백84와 흑85는 비슷한 크기. 흑87·89는 백의 역끝내기를 차단한 최후의 큰 자리이다. 255수 끝, 흑 2집반승

96 152 … 62 93 99 154 …
… 7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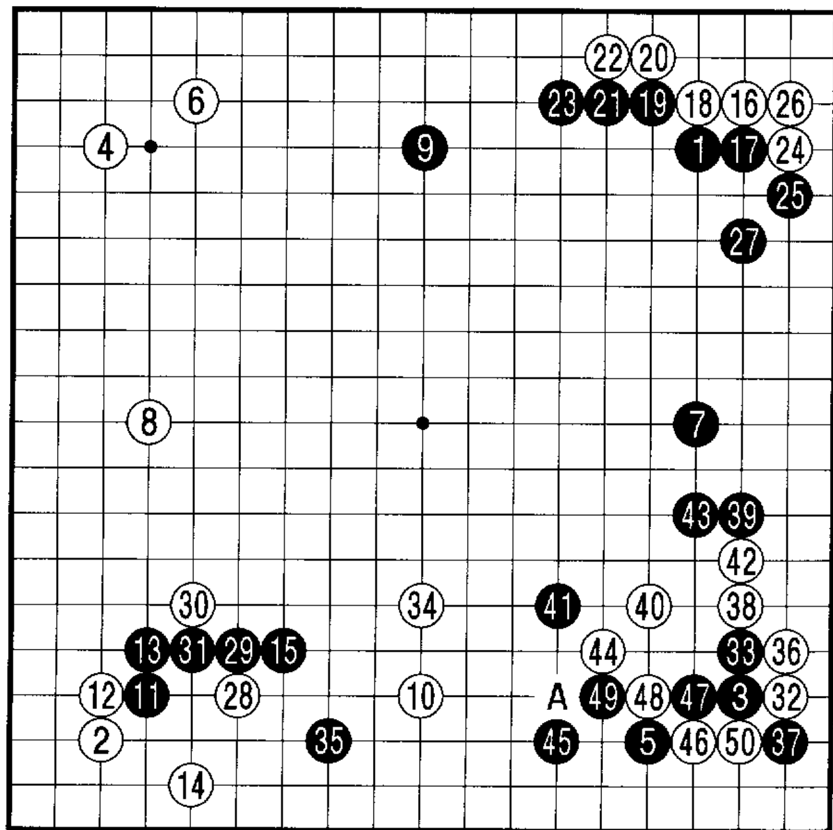


제 22 국

패왕전 도전 제2국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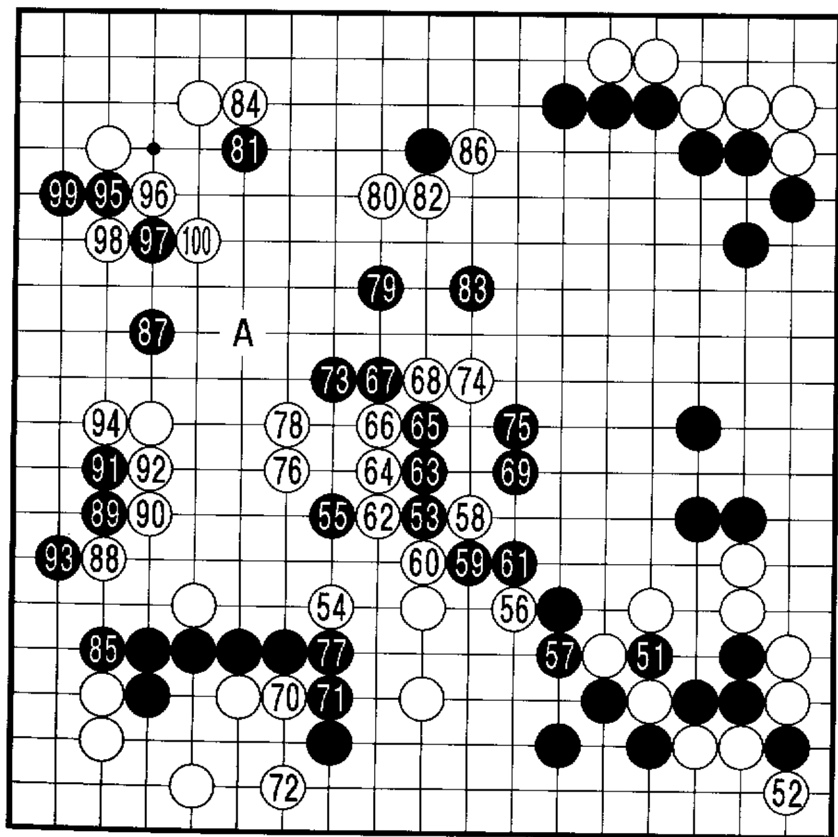
백34는 침착무비한 착점. 흑35는 36으로 두어 귀를 제압할 곳. 흑41은 당연한 기세처럼 보이지만 백46의 맥점을 유발해서 의문이다. 흑41로는 A 정도가 무난했다. 흑47은 일종의 반발이지만 50으로 잇는 것이 정수였다.



백 九단 서봉수
흑 九단 조훈현
1987. 3. 27 쉐라톤 워커힐호텔

제2보(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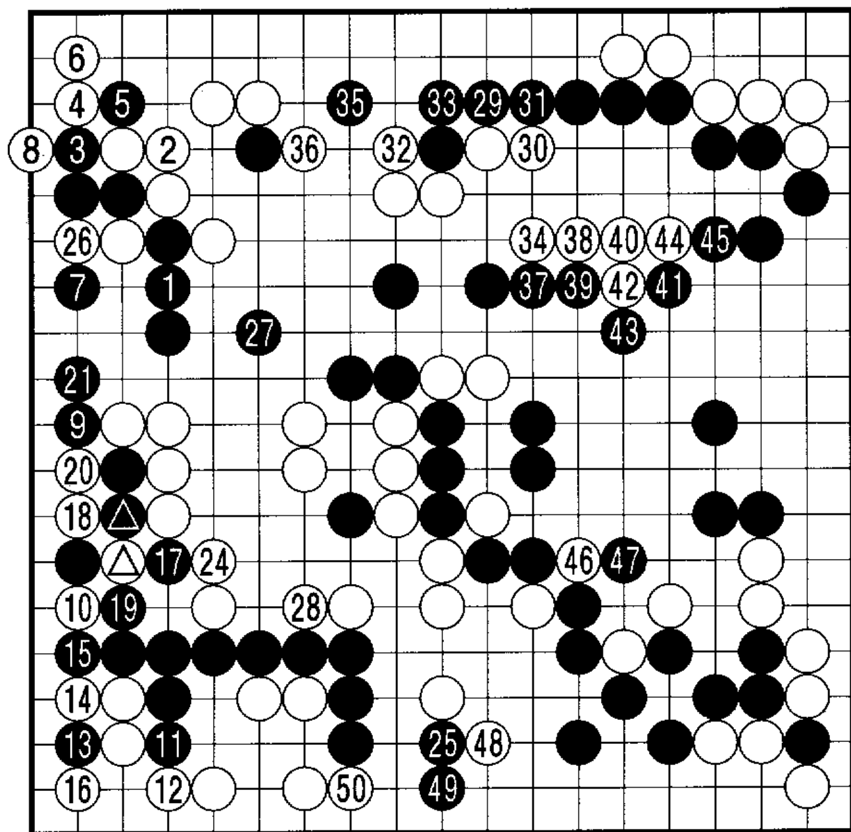
백52까지의 갈림은 백의 대만족이 이다.
다. 백88로는 A에 씌워 공격할 곳



제3보(101~150)

흑7 때 백8로는 20으로 단수친 후 흑18 때 백21로 호구쳐야 했다. 흑9가 당연한 반발로 국면이 다소 복잡해졌다. 흑17은 평범하게 18로 이어둘 곳이다. 백18·20이 통렬한 수순으로 흑25까지 후수가 불가피해져서는 흑이 불리한 국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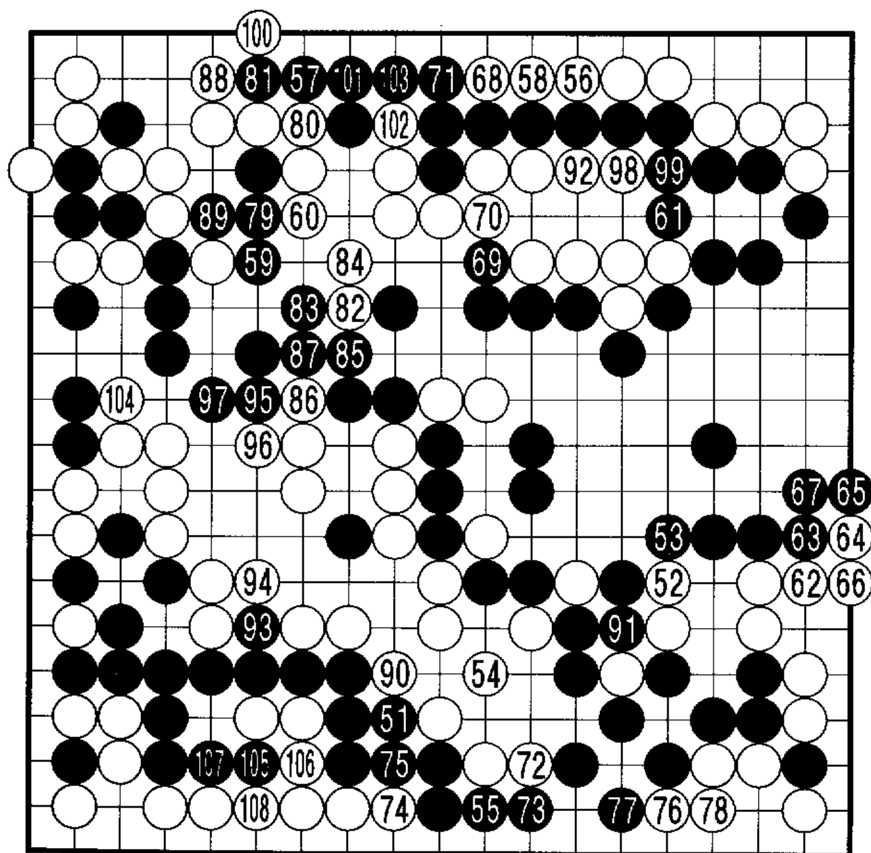
㉒…△ ㉓…●



제4보(151~208)

백56·62가 끝내기의 요처로 백승이 결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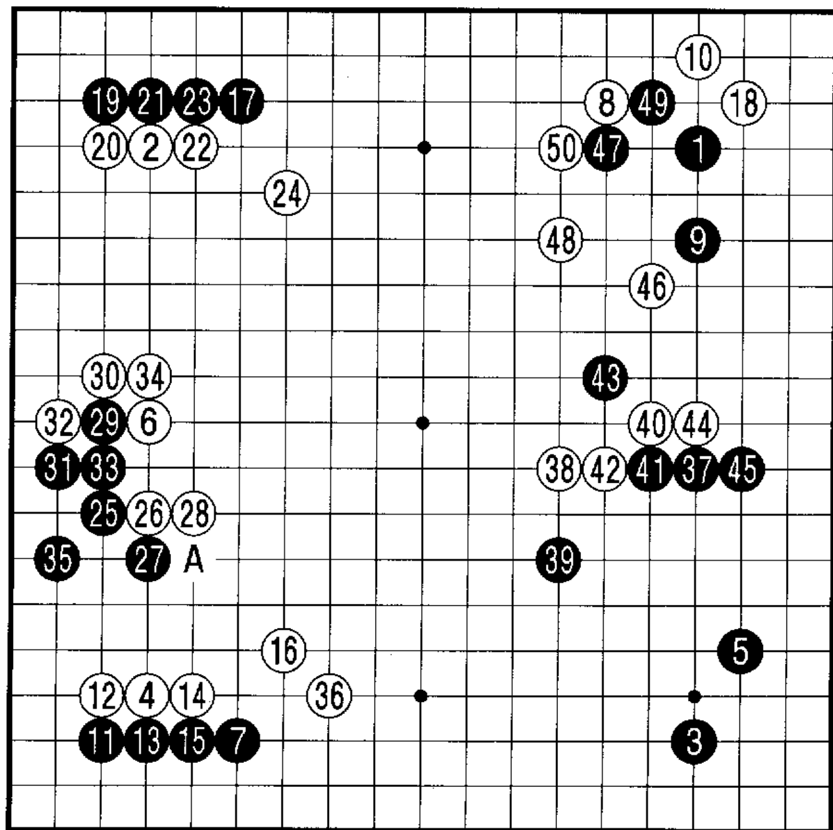
208수 이하 줄임, 백 5집반승



기왕전 도전7번기 제1국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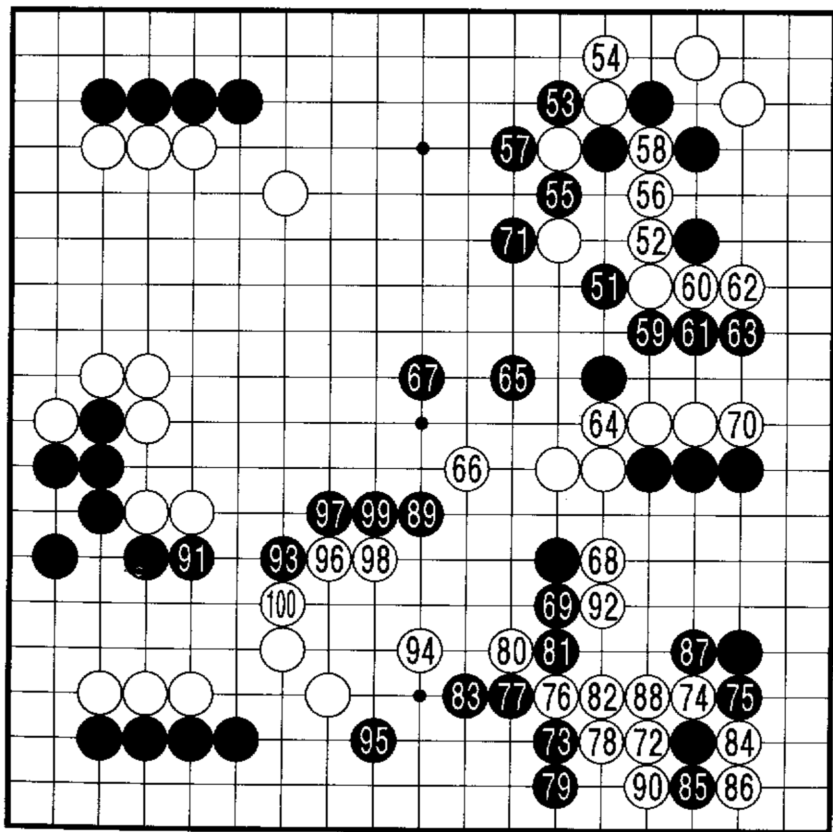
흑25는 침입의 급소이며 이하 백34까지는 이런 정도의 곳이다. 백36은 A에 막는 것이 두텁다.



백 九단 서봉수
흑 九단 조훈현
1988. 10. 7 운당여관

제2보(51~100)

흑51이 예리한 강수이다. 백58까지의 바꿔치기는 귀의 실리에 비해 중앙을 돌파한 흑이 두텁다. 흑65·67로 중앙이 돌파돼서는 집바둑의 양상이다. 흑83은 85에 뻗을 곳이다. 흑89·91은 공격을 통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뜻이다. 백92는 승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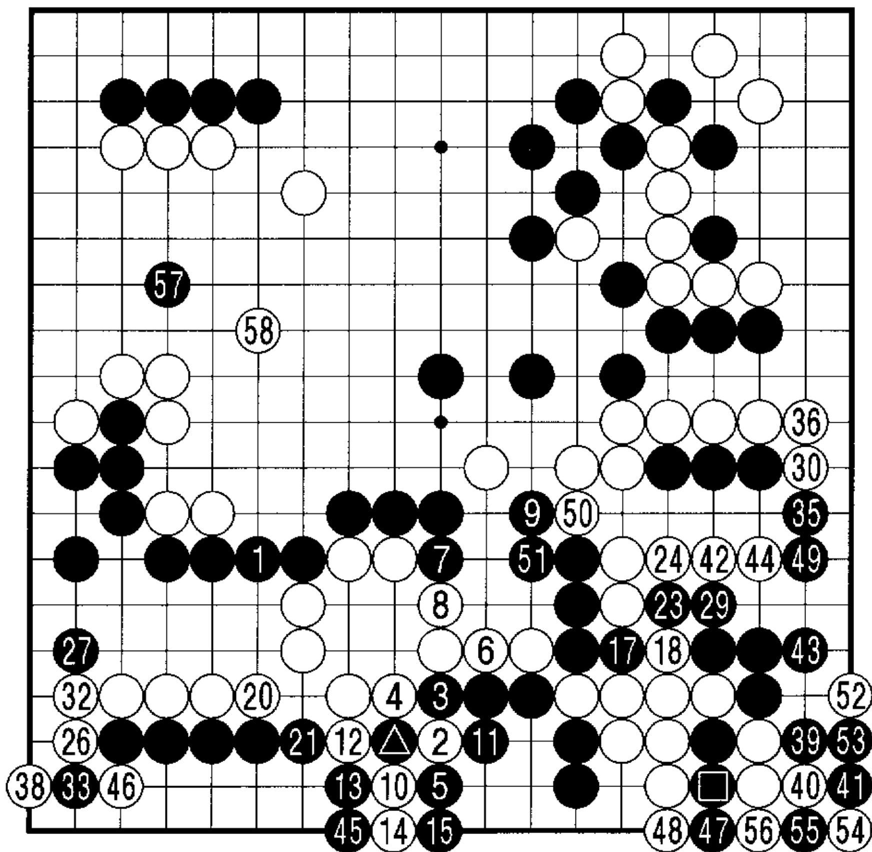


제3보(101~160)

흑9로는 51이 모양이다. 백10이 유일한 활로의 맥점. 백38로 패를 썼을 때 39로 젖힌 것은 좋지만 흑41이 큰 실수이다. 백42가 통렬한 급소. 흑41은 42에 먼저 두고 백이 변으로 연결할 때 41에 젖혀야 했다.

⑯㉒㉘㉞…②　❶❾ ❷❺ ❸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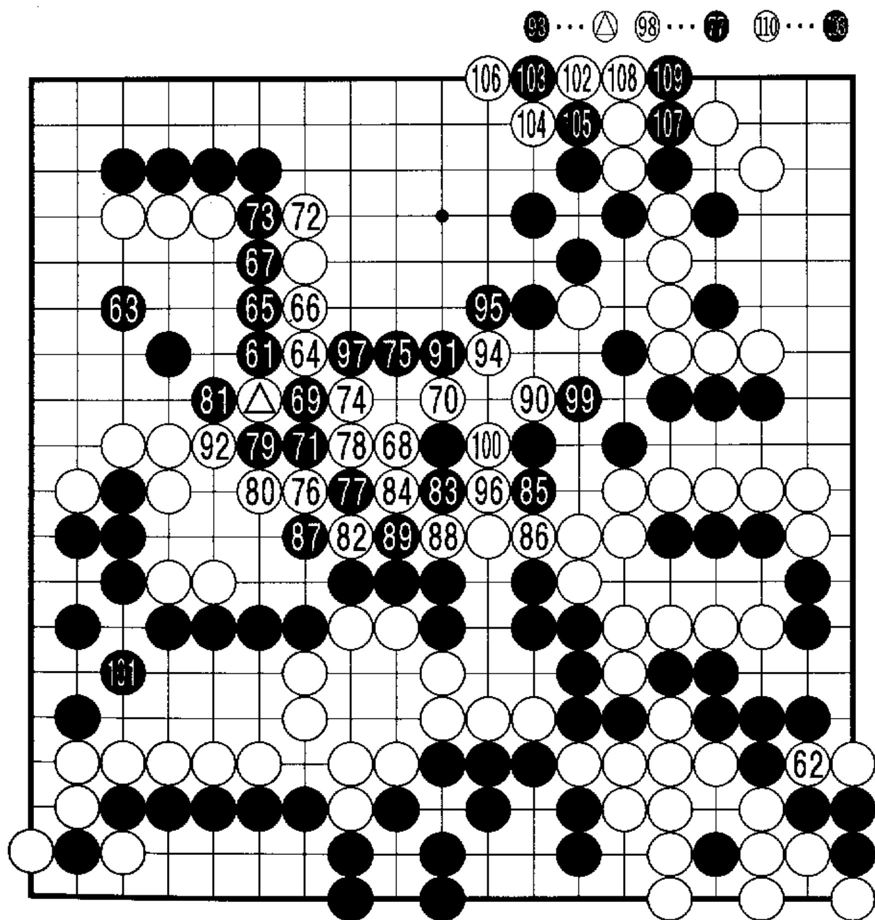
❸❼…●　❺❾…■　⑥⓪…㊹



제4보(161~210)

백64로는 65에 껴붙이는 것이 맥점. 백68이 대실수이다. 69로 끊겨서는 큰일이다. 백68은 78에 두고 버텨야 했다. 흑75가 결정적인 실수. 흑75로 77에 지켰으면 흑승이었다. 백76부터 82까지의 수순이 성립해서는 승부가 결정됐다.

210수 끝, 백 불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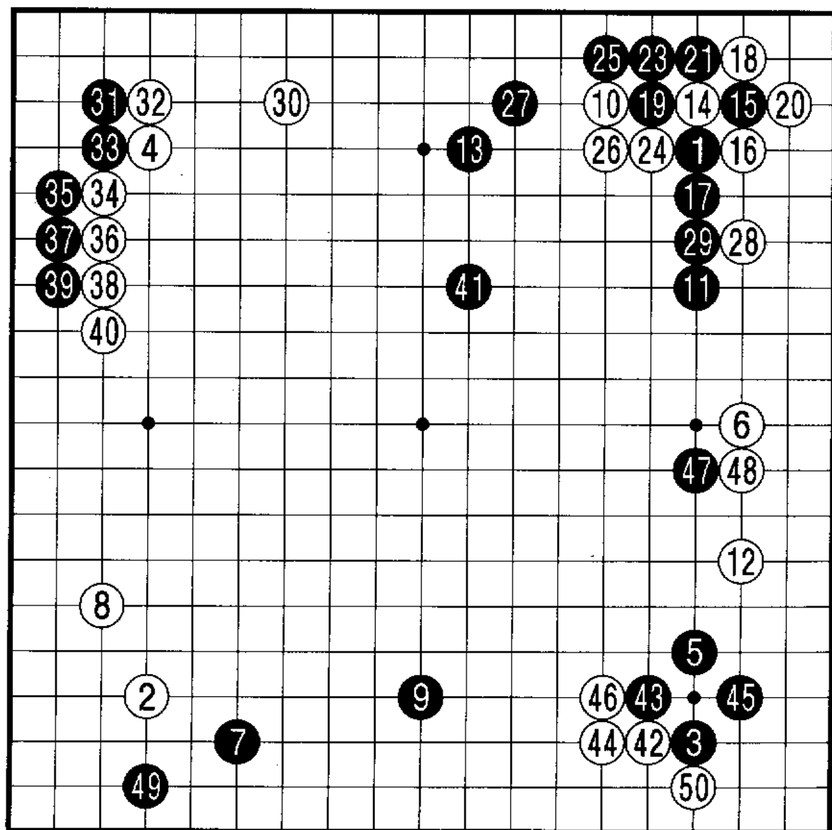


기왕전 도전7번기 제7국

제1보(1~50)

흑11은 독특한 취향. 흑19 때 백20으로 따낸 수가 의문이다. 백20으로는 21로 잇는 것이 좋다. 백24 또한 성급한 끊음으로 이하 흑29까지 흑이 성공적인 모습이다. 백42는 고심의 일착이다. 흑47·백48은 불필요한 교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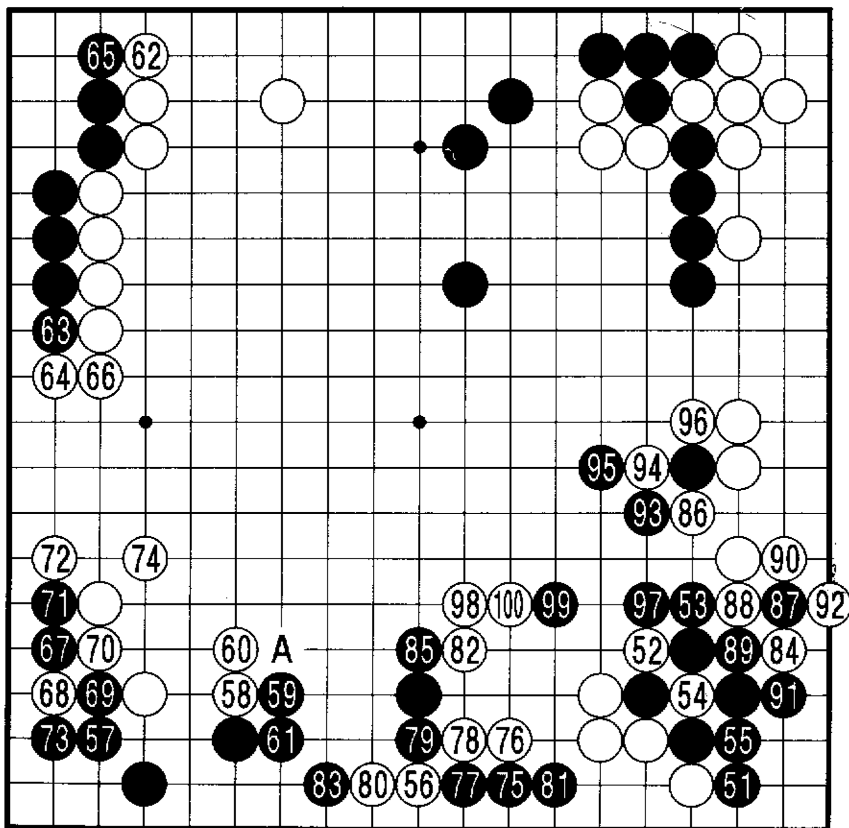
㉒…⓯



백 九단 조훈현
흑 九단 서봉수
1988. 12. 22 한국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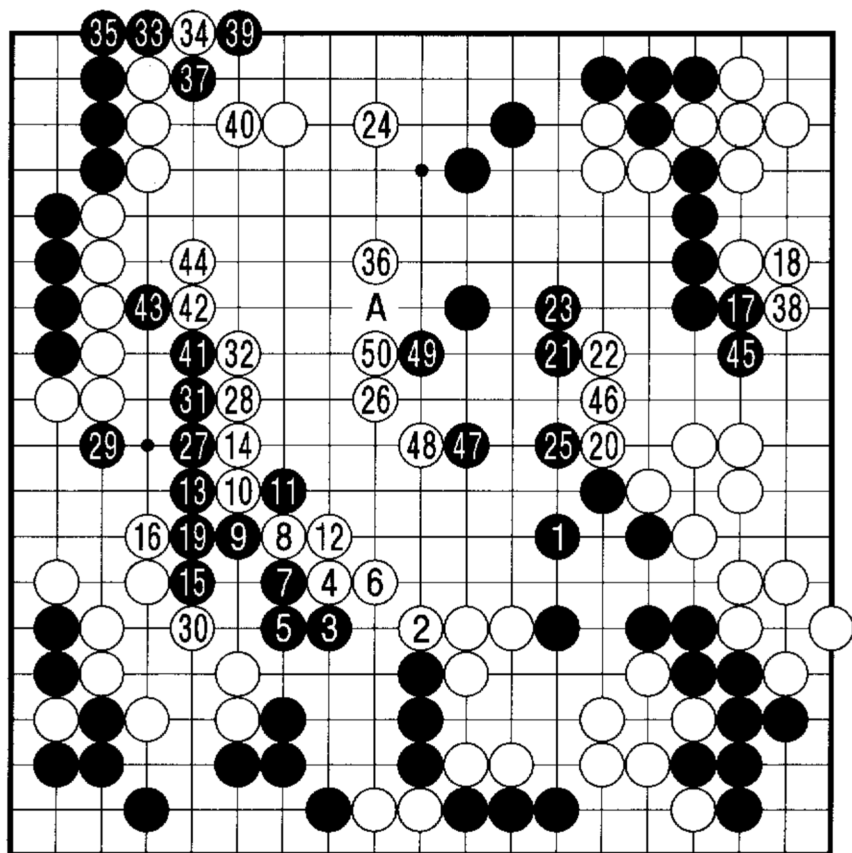
제2보(51~100)

백62가 완착. 이 수로는 A에 꼬부리는 것이 두텁다. 흑75는 모험성이 짙은 수. 백76 이하 82까지는 온건책인데 흑85까지 실리의 손실이 크다. 흑93까지 흑이 필승의 형세를 구축한 모습이다.



제3보(10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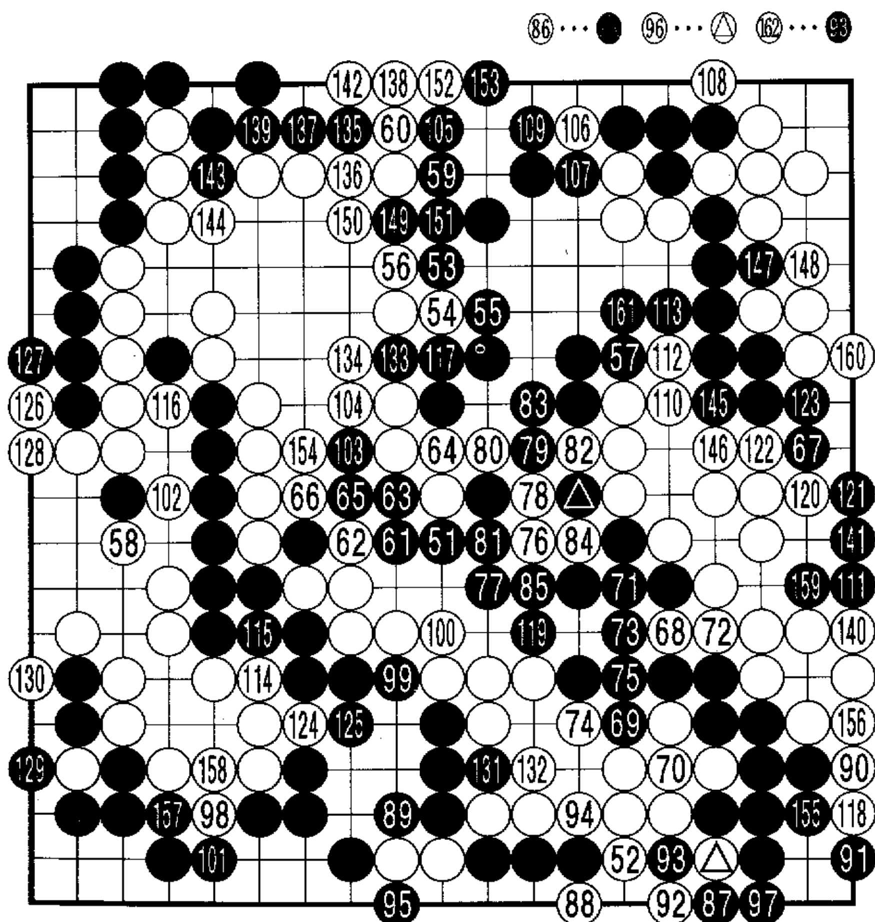
흑11·13은 백의 약점을 이용하는 좋은 행마법이다. 백20 때 흑21은 승리를 굳히기 위한 수순.
흑27은 A의 곳으로 두는 것이 좋았다. 흑29는 손해수로 백30이 기민하다. 그러나 형세는 여전히 흑이 우세하다.



제4보(151~262)

전보에서 승부가 결정된 모습으로 본보는 어려울 것이 없는 끝내기 수순이다.

262수 끝, 흑 3집반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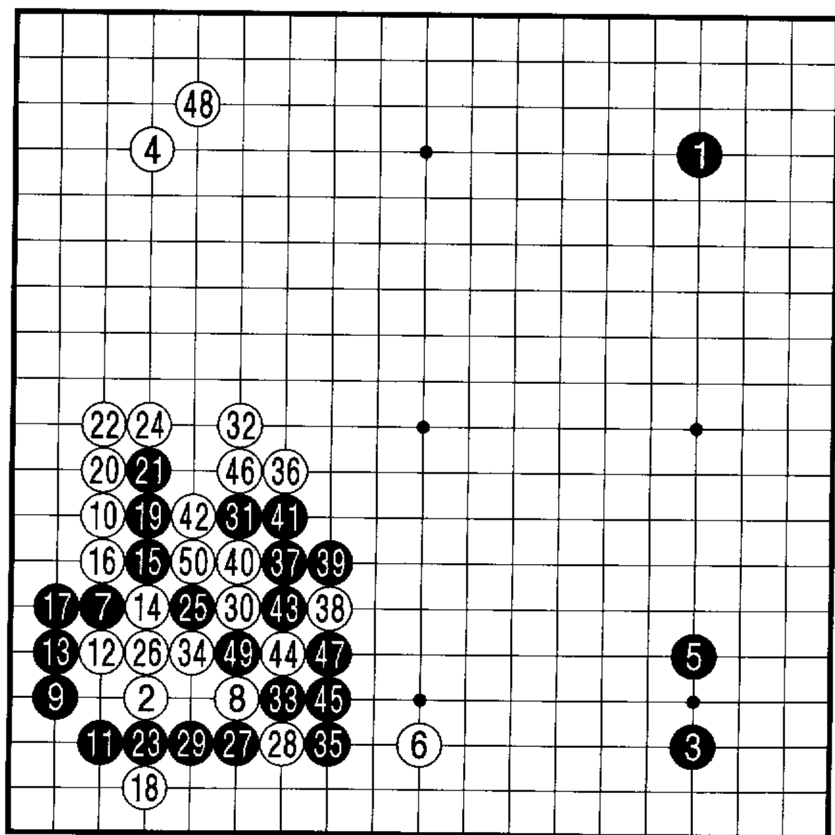


제2회

후지쯔배 준준결승전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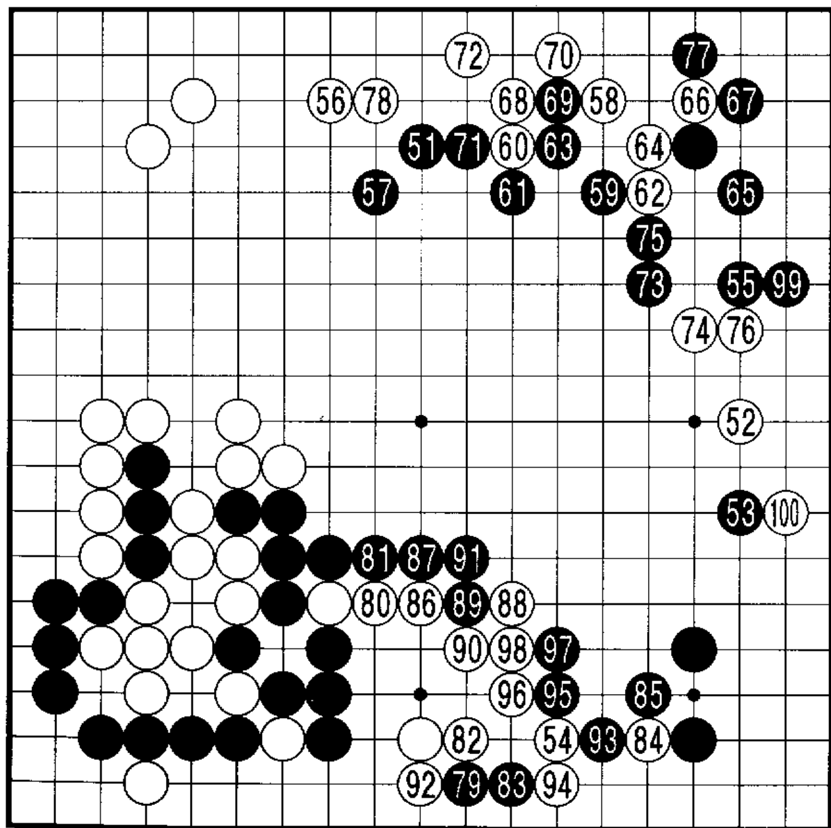
백18은 50에 단수칠 곳. 흑21 이하 29까지 흑이 정확한 수순으로 백의 실수를 추궁하고 있다. 백36 때 흑 37 이하의 사석전법은 당연하다. 흑 47까지 흑이 우세를 확립한 모습이다.



백 八단 왕명완
흑 九단 서봉수
1989. 6.3 일본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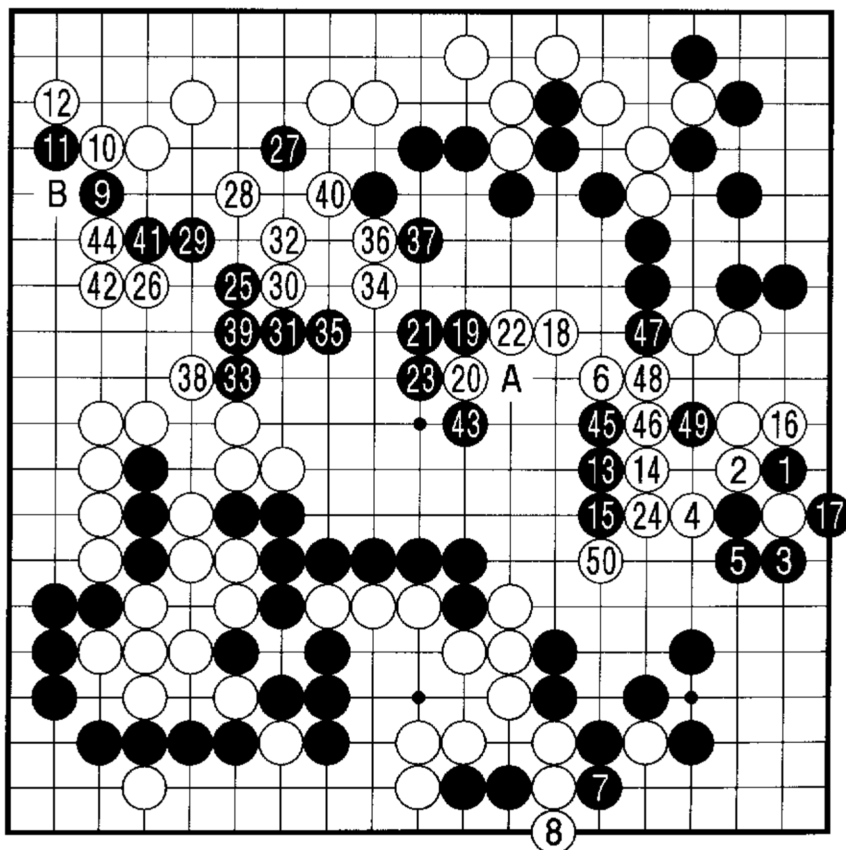
제2보(51~100)

백58은 63에 갈라칠 곳이다. 흑 59·61이 멋진 응수이다. 백62 때 흑63은 지나친 기백으로 64로 끊을 곳이다. 백68은 73에 뛸 자리. 흑 79가 급소일격이다.



제3보(101~150)

흑13은 공격의 급소. 백18은 A에 뛰는 것이 좋다. 흑39로는 40에 두는 수도 가능하다. 흑43으로 B의 곳에 이었으면 흑의 낙승 국면이다. 흑45 이하 49는 공격을 통해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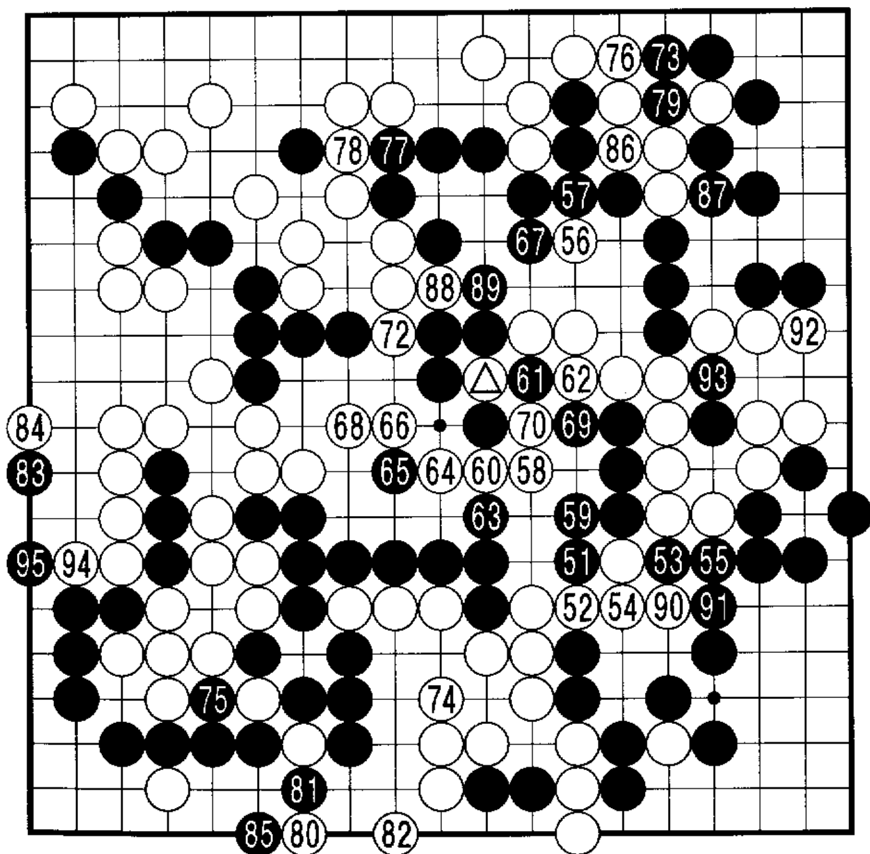


제4보(151~195)

이하 백72까지 대바꿔치기가 이루어졌는데 백의 손실이 워낙 커서 흑승이 결정된 모습이다.

195수 끝, 흑 불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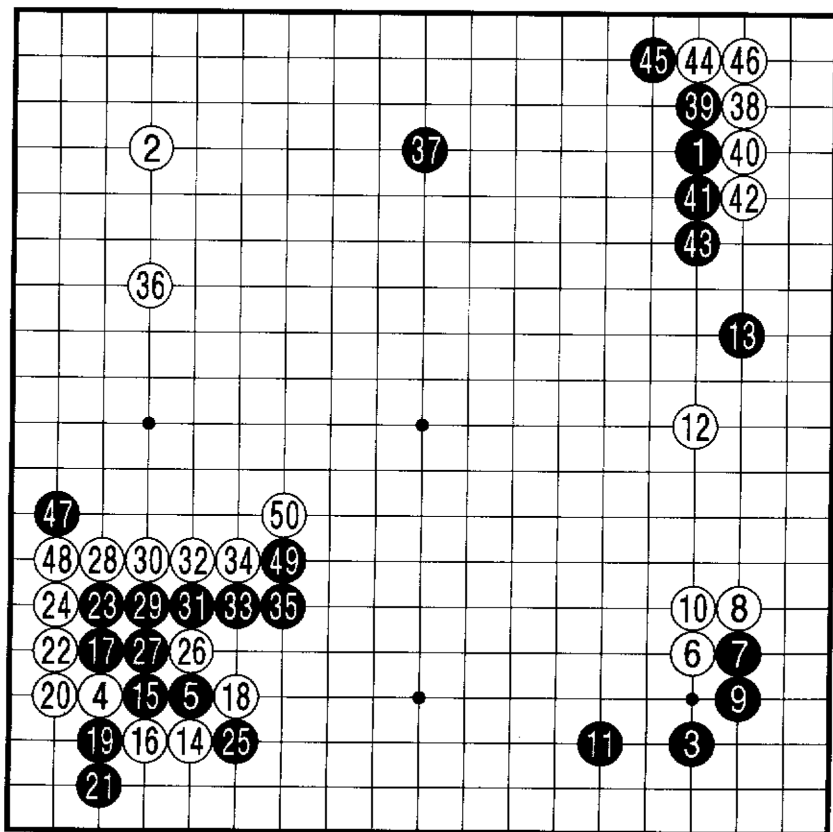




국기전 도전 제5국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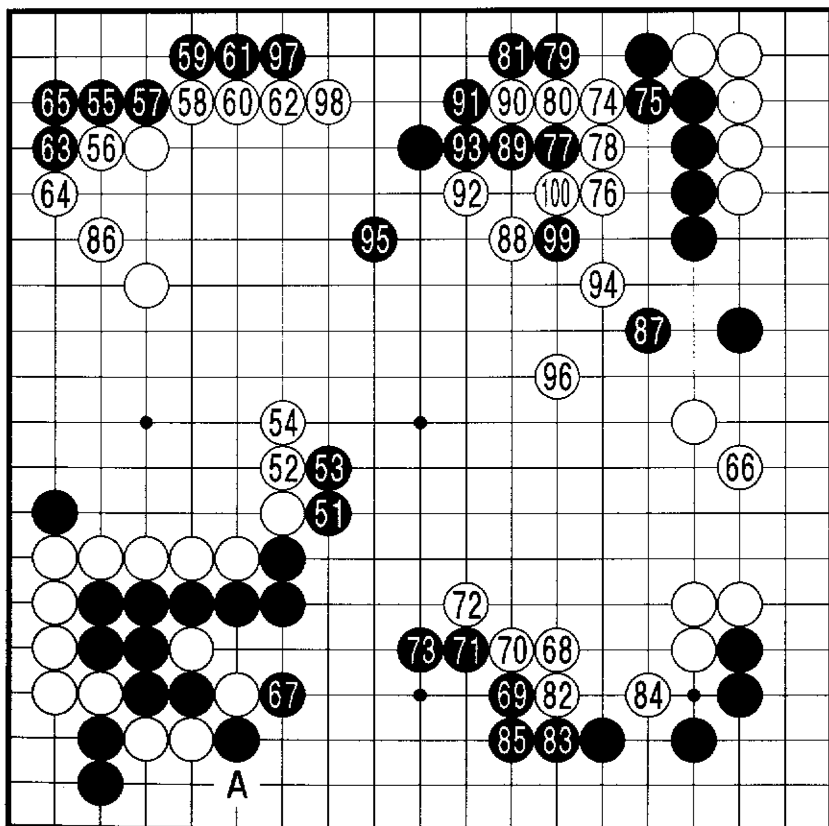
흑39는 올바른 방향인데 흑41 이하 45까지는 너무 쉽게 실리를 허용한 모습이라 약간 불만이다. 흑43으로는 46으로 젖혀 잇고 싶다.



백 九단 조훈현
흑 九단 서봉수
1989. 7. 18 한국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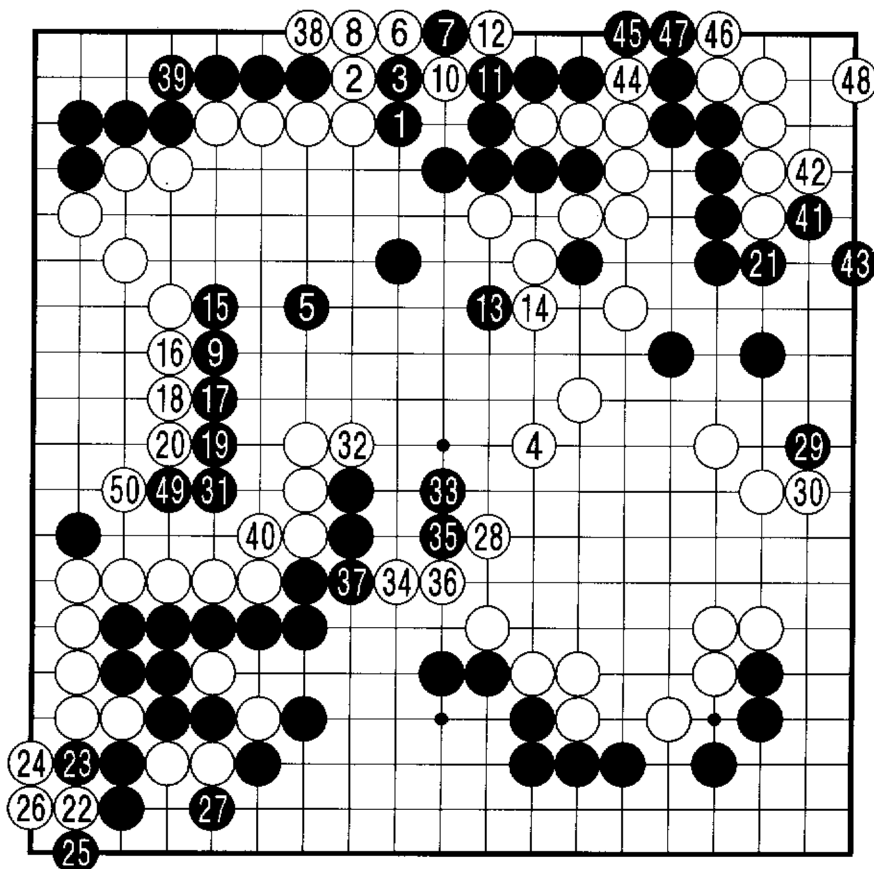
제2보(51~100)

백66은 지나친 낙관이 부른 완착. 이 수로는 A에 단수쳐서 움직이고 싶다. 흑67이 두터운 수비이다. 그러나 백72까지 여전히 백이 우세한 국면. 백76이 문제의 한수. 흑77·79로 넘어가서는 흑이 편해졌다. 백76으로 89에 두었으면 흑이 괴로웠다. 백84는 흑85와 교환되어 손해가 크다.



제3보(10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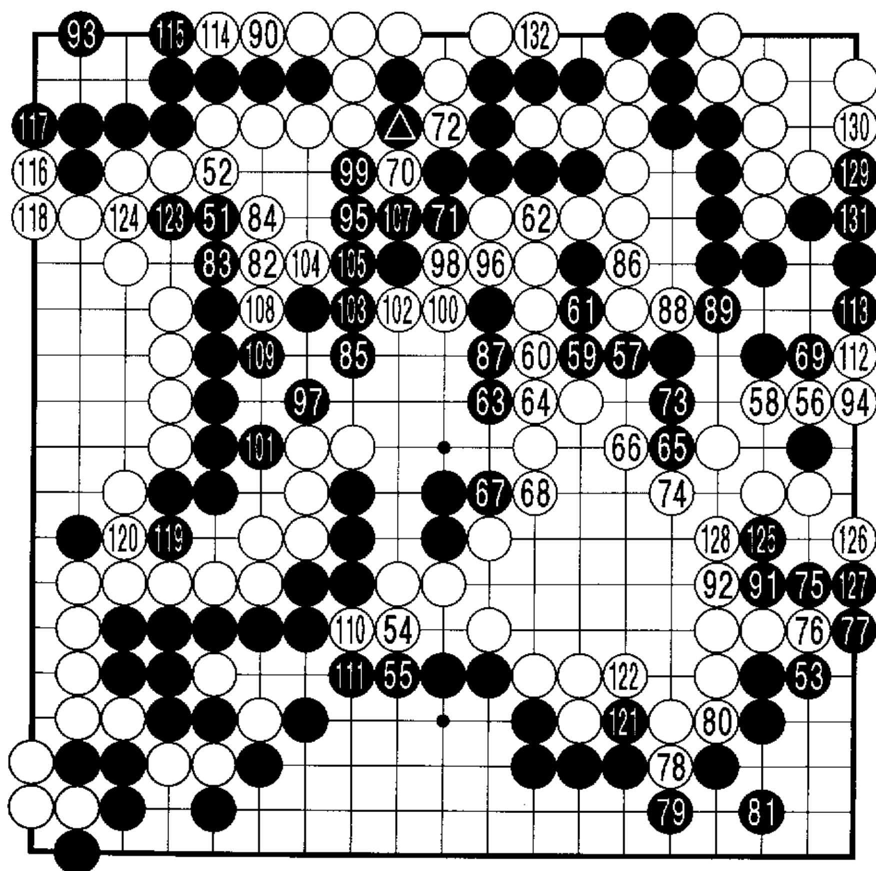
백6이 절대선수라고 착각한 수. 백8 때 흑이 9로 손을 돌려서는 백의 패색이 짙어졌다. 백10·12로 상변 흑 대마를 위협했으나 흑13·15로 보강해서는 더이상 공격당할 돌이 아니다. 흑21은 두터운 끝내기.



제4보(151~232)

흑53이 최후의 큰 끝내기로 흑이 반면 10집 이상 남기고 있는 형세다.

232수 끝, 흑 4집반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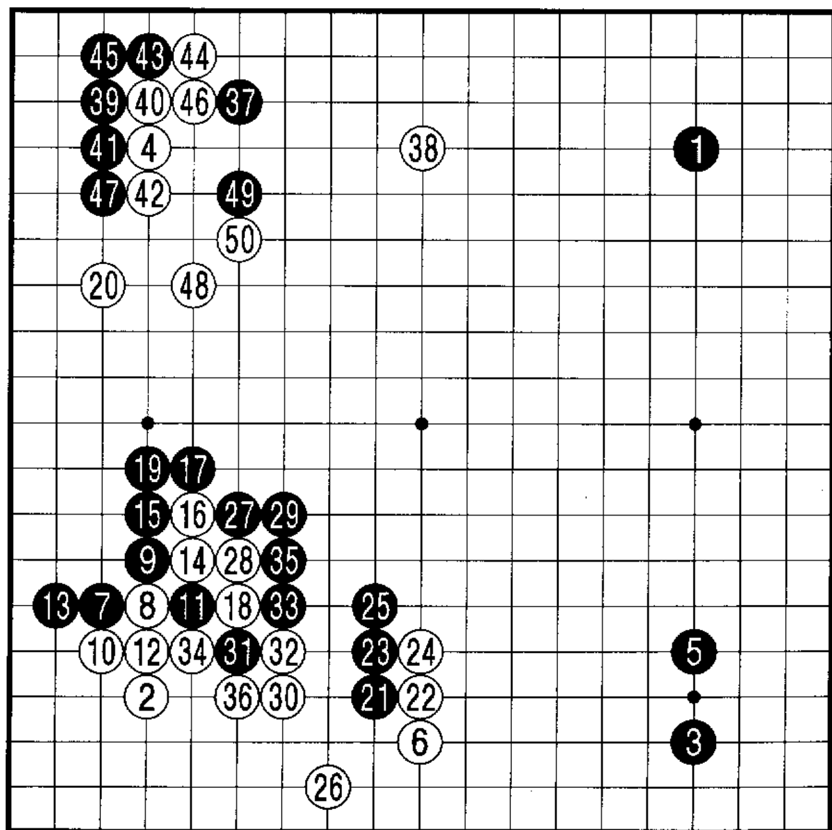


동양증권배 결승5번기 제4국

제1보(1~50)

흑27 · 29가 두터운 호착이다. 백30 때 흑31이 또한 멋진 타이밍으로 35까지 흑이 두터운 결말이다. 흑37 때 백38은 궁여지책이다. 백48은 변칙행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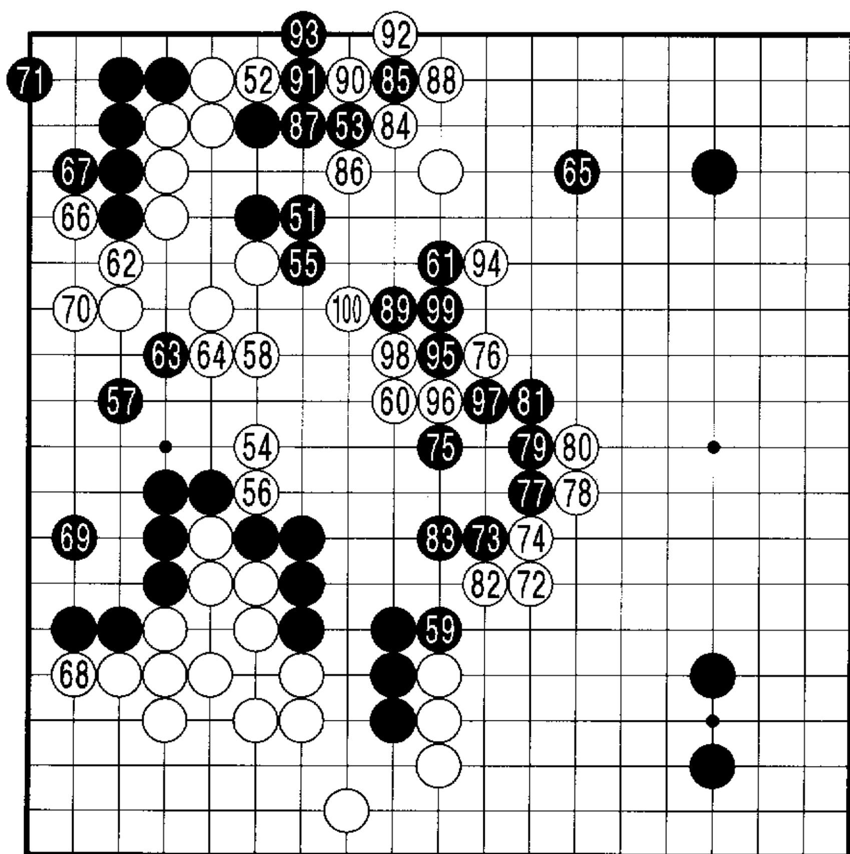
흑49는 돌의 흐름이며 백50은 끊기는 약점을 보강한 수이다.



백 九단 서봉수
흑 四단 이창호
1990. 10. 31 한국기원

제2보(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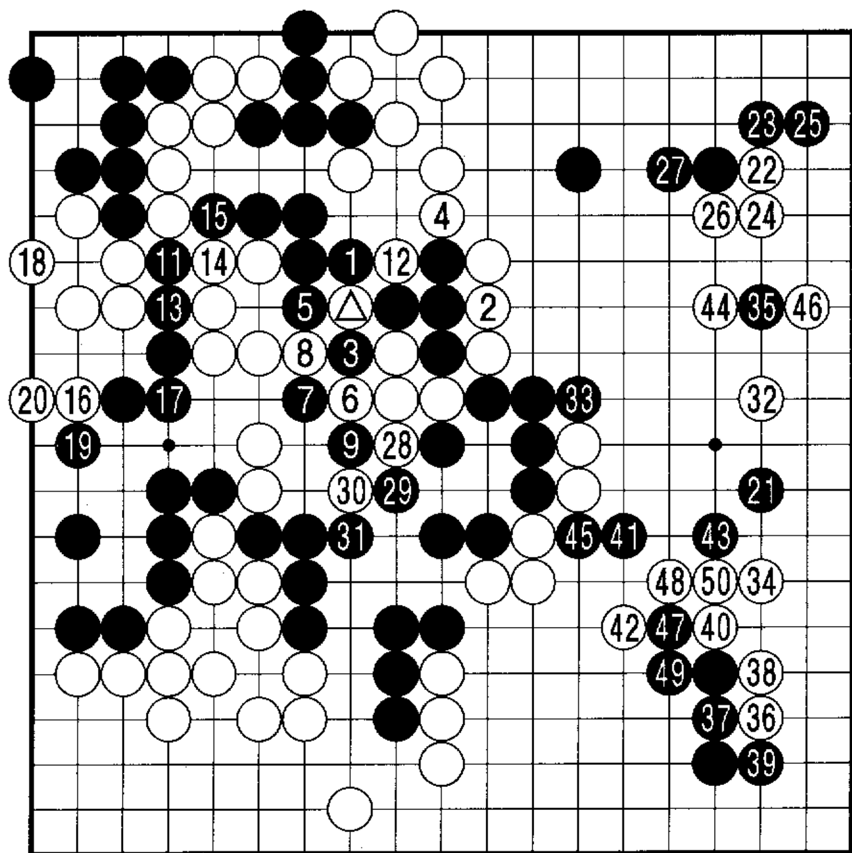
백54가 과수. 흑55 때 백56은 기세상 당연한데 흑57로 실리를 취하면서 안정해서는 흑이 기분 좋다. 백58 때 흑59는 82로 날일자할 곳이다. 그러나 흑65가 절호점이어서는 형세가 흑쪽으로 기운 모습이다. 백72는 빛나는 일착으로 80까지 백이 어느 정도 추격한 모습이다. 백84는 저돌적인 승부수. 그러나 이하 흑93까지 별무신통인 모습이다. 백94는 무리성질은 또 다른 승부수. 흑95·97은 백의 무리를 응징못한 완착. 흑95로는 96으로 나가 끊을 곳이다. 백100이 통렬한 기습이다.



제3보(101~150)

흑3이 패착. 백4가 호착으로 흑5, 백6까지 패가 되어서는 역전된 모습이다. 흑은 마땅한 팻감이 없다. 흑3으로는 4에 치받아야 했다. 흑21은 한칸 좁혀서 전개할 곳. 백34가 통렬한 침입이다. 흑41 때 백42는 안전운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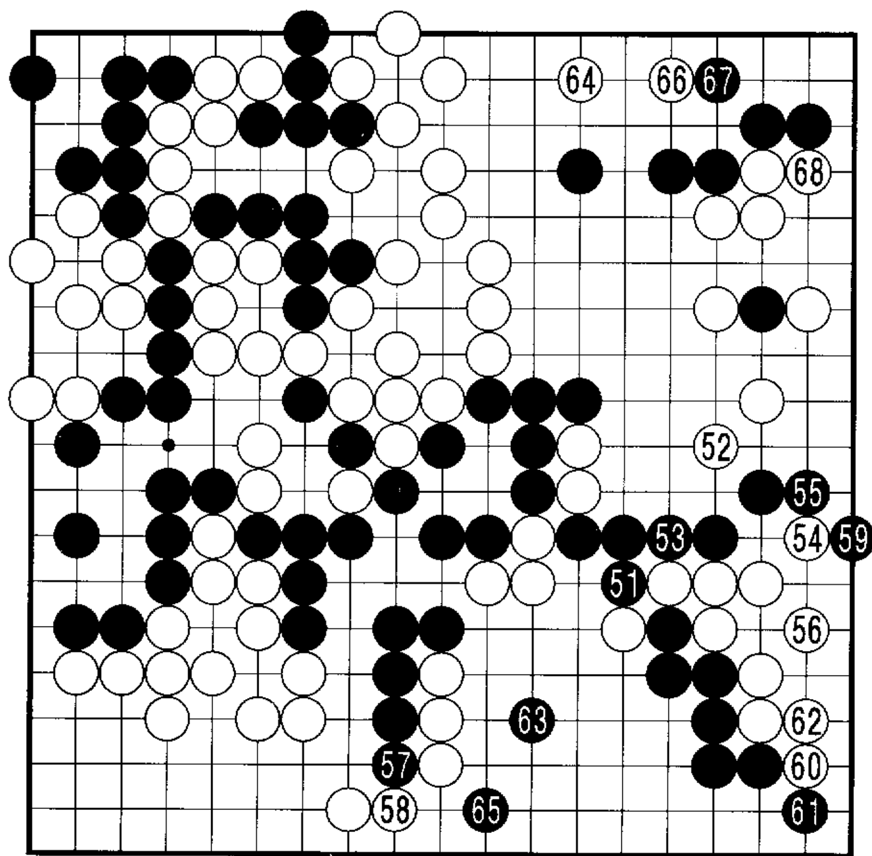
⑩…△



제4보(151~168)

흑59는 착각. 백60·62로 젖혀 이어서는 손실이 작지 않다. 백68에 이르러 흑은 항서를 쓸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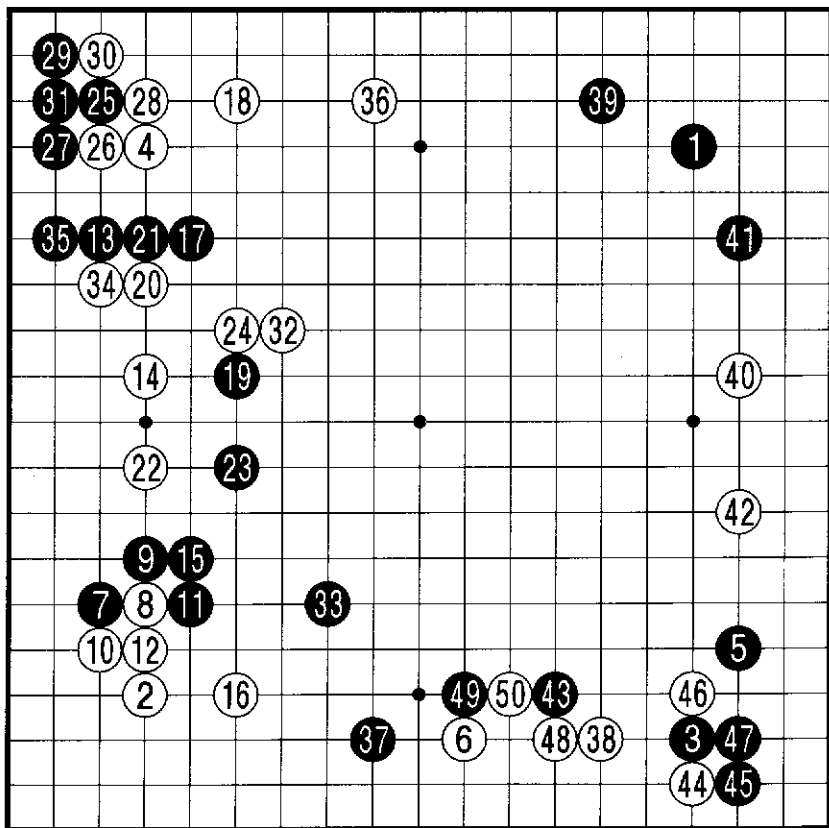
168수 끝, 백 불계승



SBS세계바둑최강전 최종국

제1보(1~50)

흑41은 독특한 착상. 흑43 때 백 44·46은 불필요한 선수활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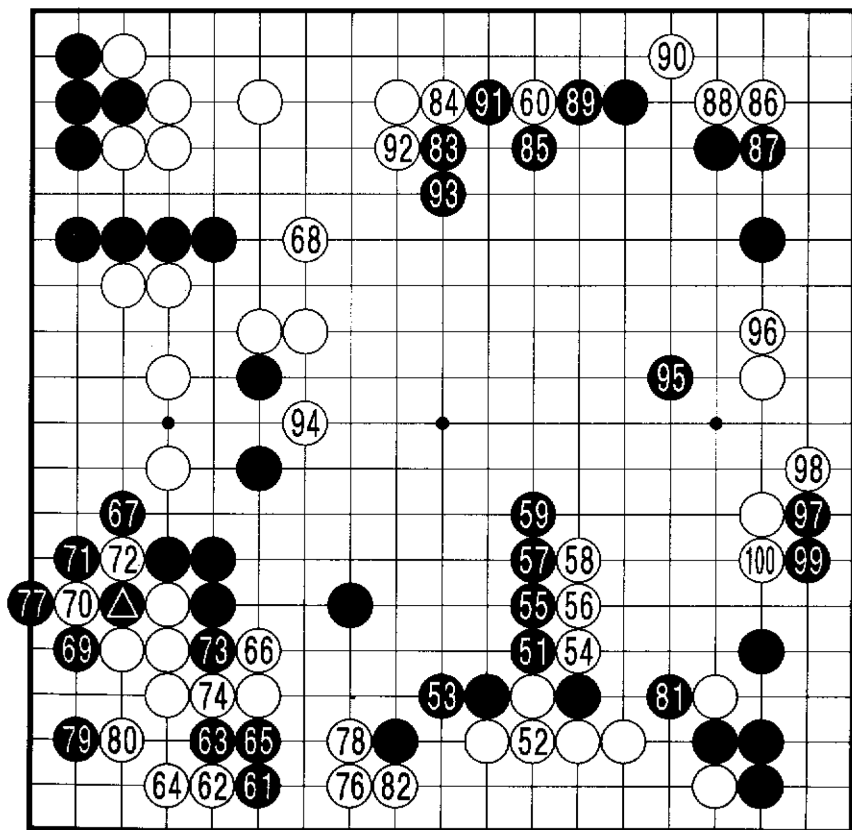


백 九단 서봉수
흑 九단 섭위평
1992. 2. 9 힐튼호텔

제2보(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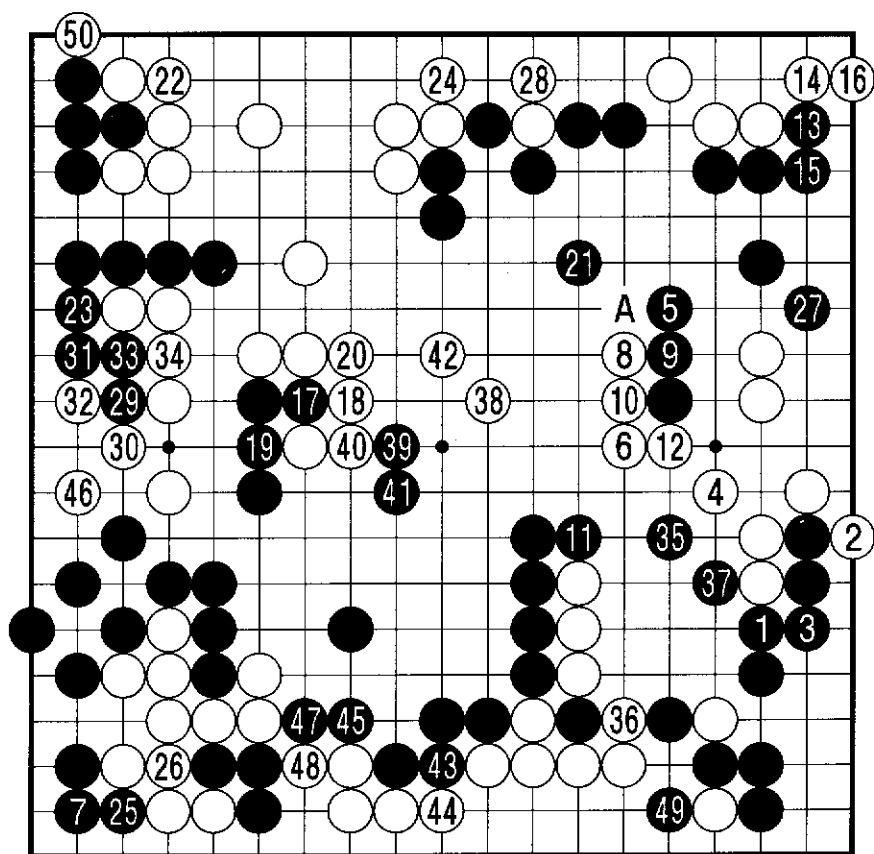
백54 이하 58까지는 명백한 이적행위이나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백60이 최후의 큰 곳. 흑81은 백82로 넘게 해서 실리의 손실이 크다. 흑93까지 쌍방 불만없는 호각의 절충. 흑95에 이은 97이 호착이다.

75…●



제3보(10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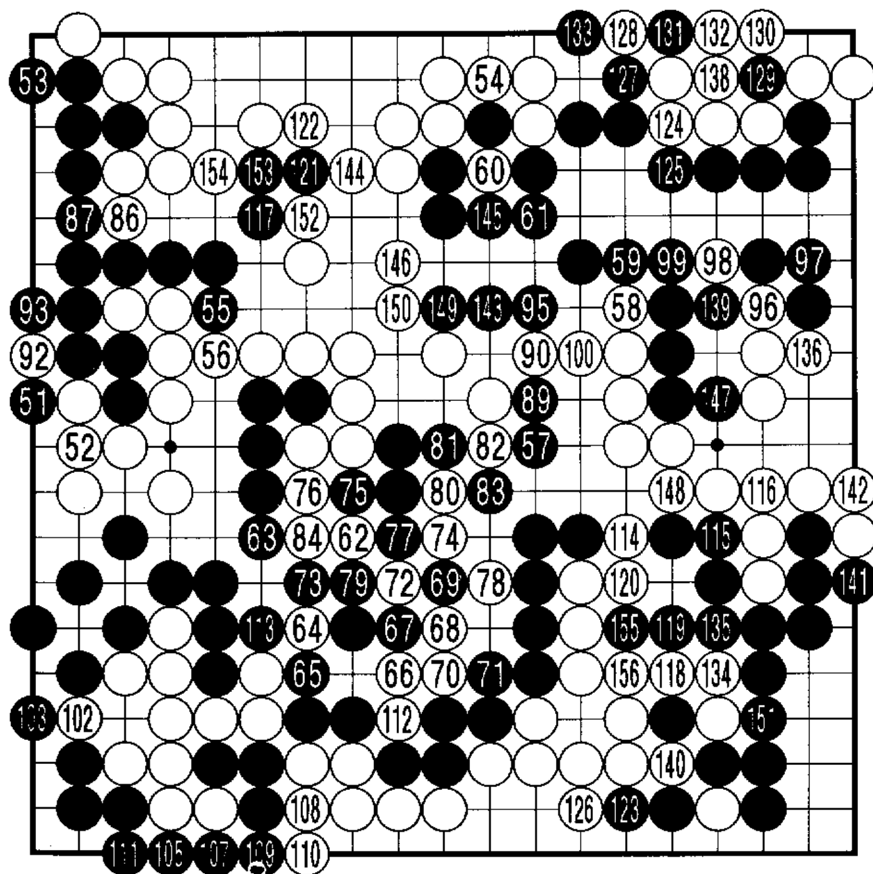
흑7은 10으로 두는 것이 정수. 흑21도 A의 곳이 정수이다. 흑27은 실리상으로 크지만 흑35·37이 손해수여서 큰 소득이 없다. 그러나 이하 흑47까지 중앙에 흑집이 생겨서는 흑승이 결정적이다.



제4보(151~256)

백62 때 흑63은 국면을 어렵게 만든 실착이다. 흑63으로 75에 나가 끊었으면 흑이 쉽게 이길 수 있었다. 백64·66이 통렬한 반격이다. 그러나 흑69 때 백70이 어이없는 실착으로 스스로 기회를 외면한 모습이다. 백70으로는 단순하게 72로 끊을 곳이다. 흑79가 통한의 패착으로 당연히 84의 곳에 끊어야 했다. 백84로 꽃놀이패가 발생해서는 형세역전이다. 256수 끝, 백 불계승

85 91 [illegible] 106 … 69 88 94 104 … 72 [illegible] …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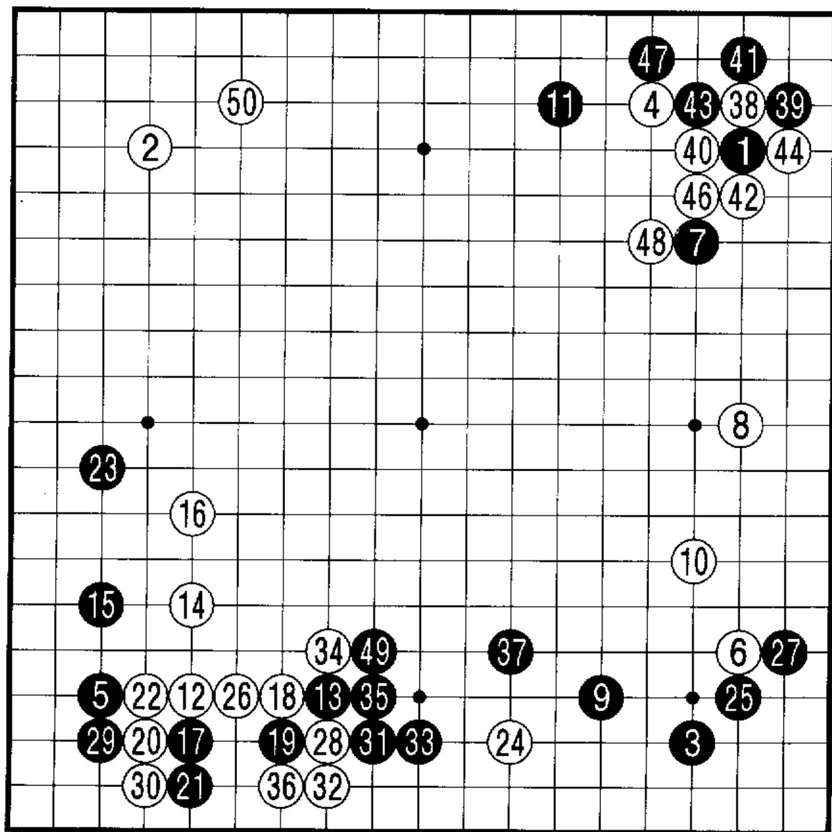


박카스배 준결승전

제1보(1~50)

흑27은 당연한 기세. 백28 때 흑29 이하 37까지 흑의 사석전법이 성공을 거둔 모습이다. 흑49는 두터운 보강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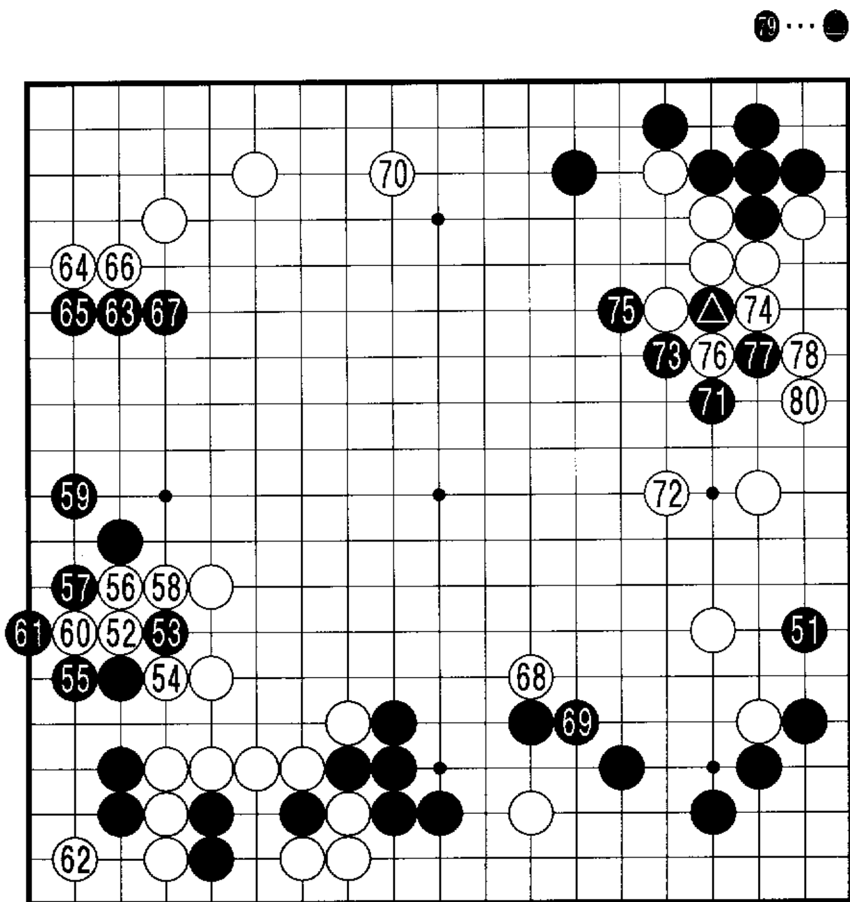
45…38



백 九단 조훈현
흑 九단 서봉수
1992. 5. 7 한국기원

제2보(5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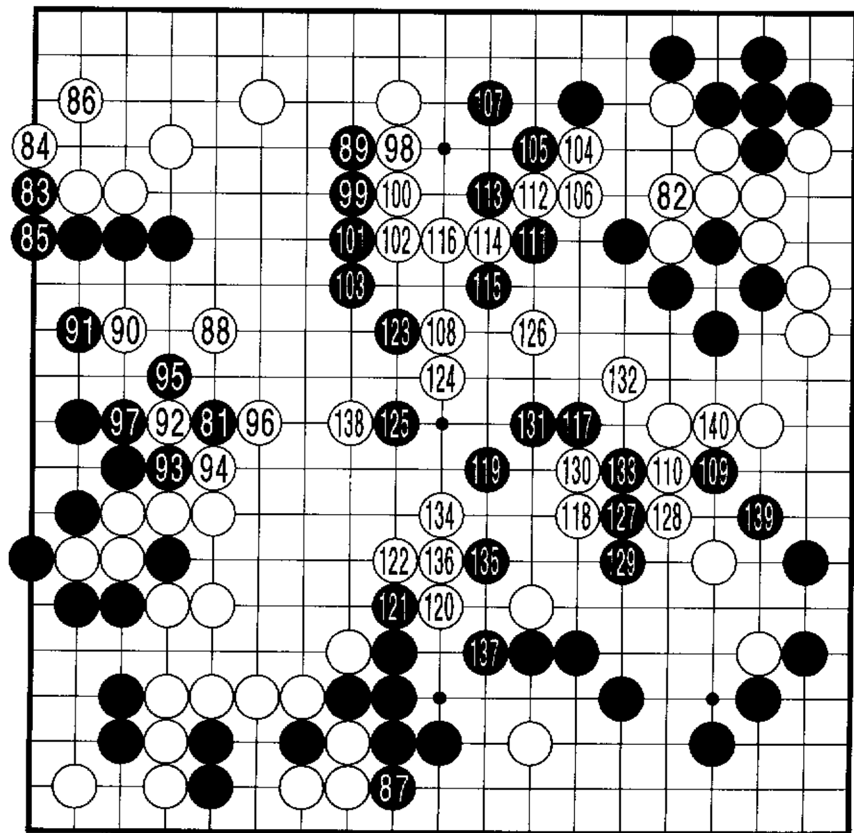
백52가 통렬한 노림수이다. 백70이 완착으로 72의 곳에 한칸 뛸 곳이다. 흑71의 준동이 당연하면서도 통렬한 수이다.



제3보(81~140)

흑87이 대세를 그르친 수. 흑87로는 89로 어깨짚어야 했다. 백88이 준엄한 응수타진이다. 백92가 통렬한 건너붙임으로 백96까지 흑이 활용당한 모습이다.

백98 이하 108까지 흑으로선 위기를 맞이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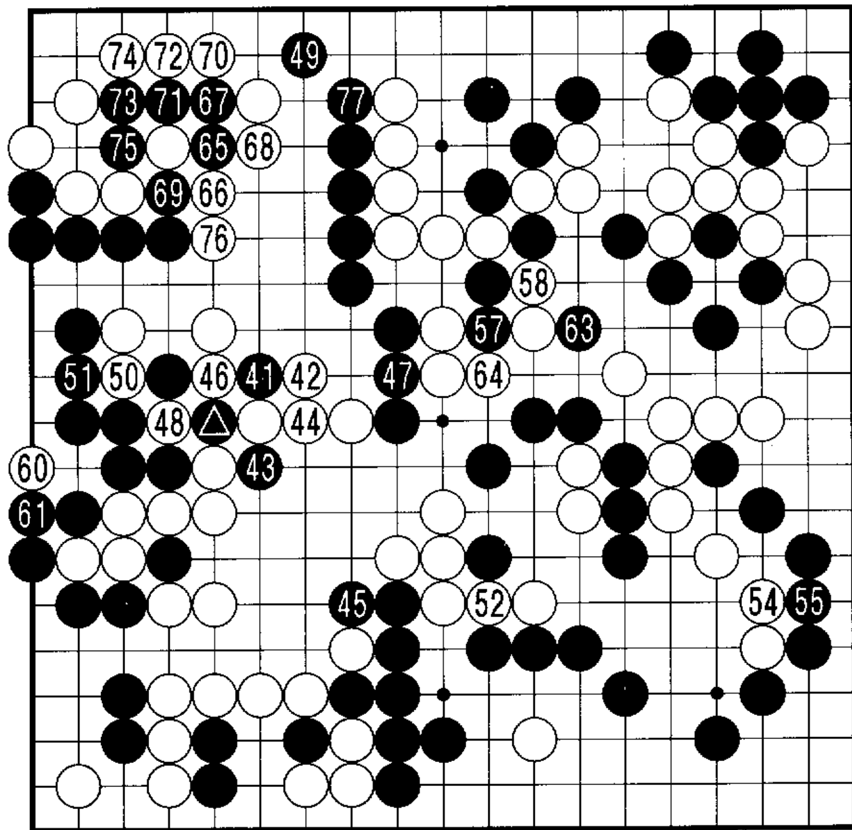


제4보(141~177)

흑53으로 본격적인 승부패가 발생했다. 흑57이 졌으면 패착이 될 뻔한 대악수. 백58로 64에 두었으면 흑이 곤란했다. 흑63 때 백64는 버팀수이자 승부수. 백66이 패국을 자초한 자멸수이다. 흑67의 반발을 사서 이하 흑75까지 손해를 초래하고 흑77까지 진행되어서는 응수두절이다.

177수 끝, 흑 불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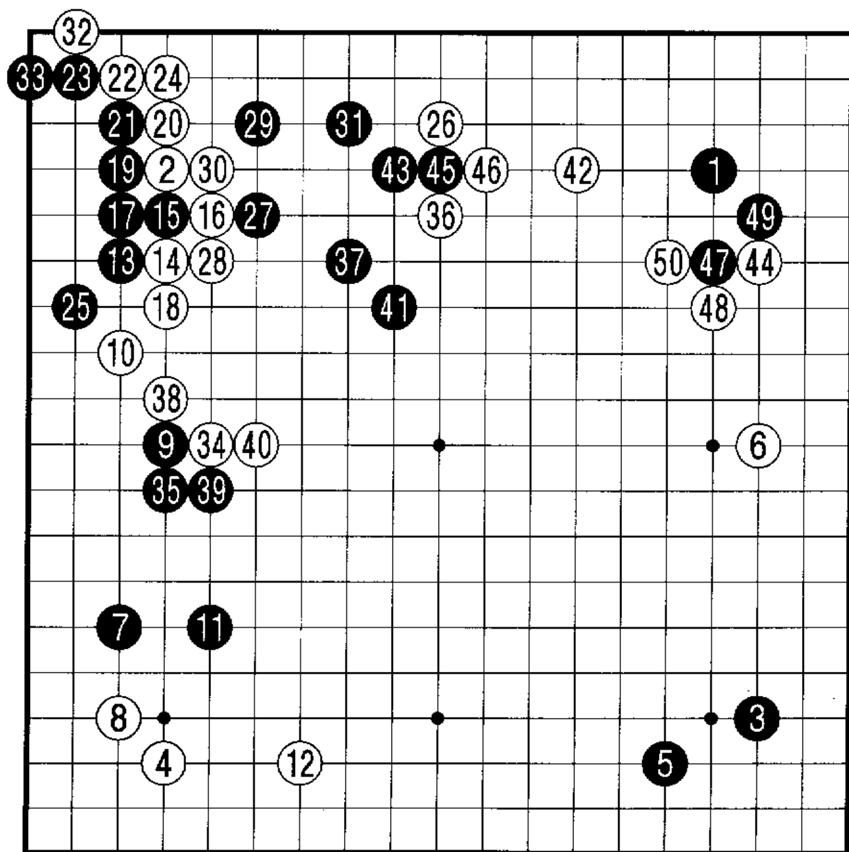
53 59 … ▲ 56 62 … 48



대왕전 패자 준결승전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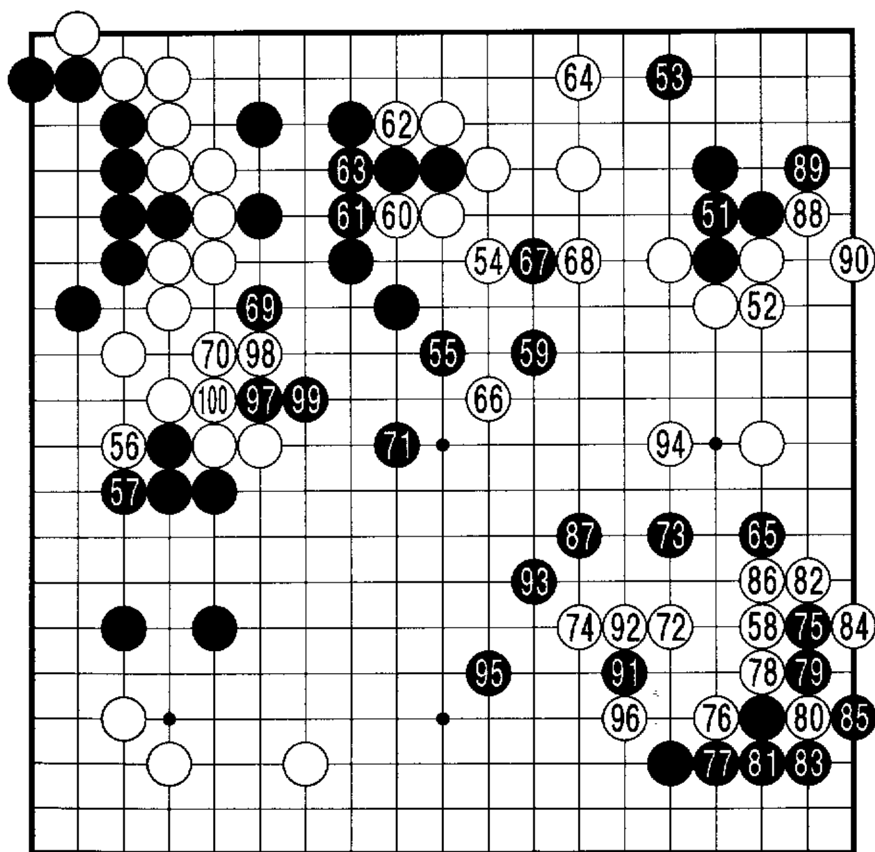
흑43은 단순하게 44로 받는 것이 정수이다. 백44가 통렬한 양걸침이다. 흑47·49는 적절한 정석선택이다.



백 六단 유창혁
흑 九단 서봉수
1992. 6. 4 한국기원

제2보(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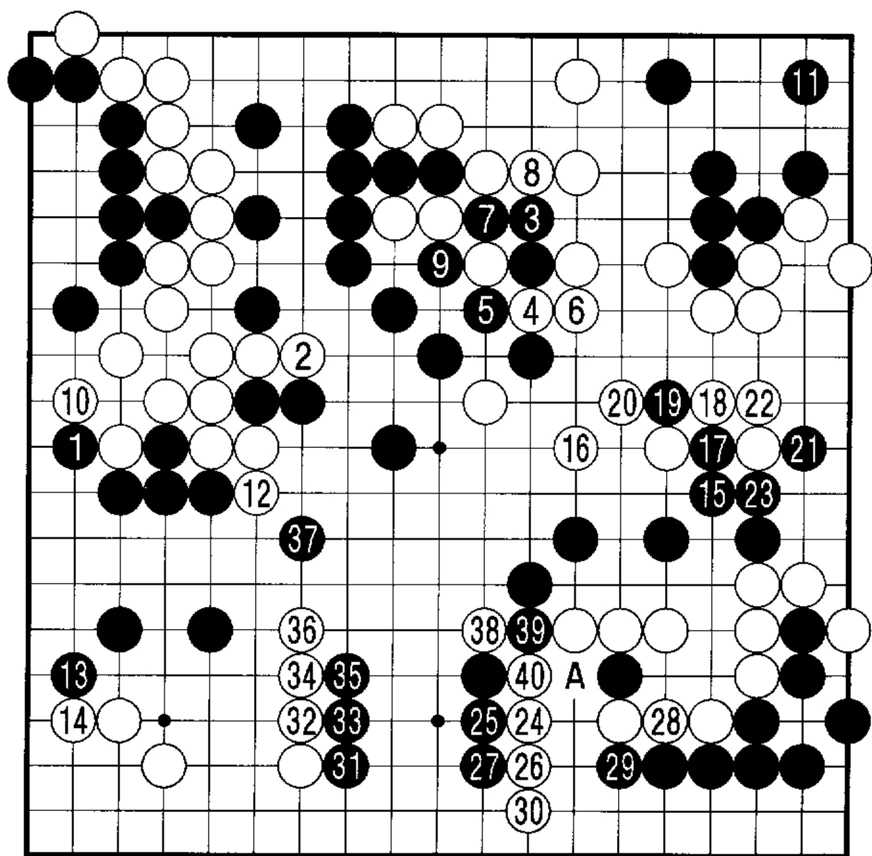
백66 때 흑67이 상대의 허를 찌르는 호착이다. 백74 때 흑75가 실착. 백76 이하 86까지의 활용이 흑으로선 쓰라리다.



제3보(101~140)

백2 때 흑3은 경솔한 수로 백4의 역습이 날카롭다. 흑31 때 백32 이하 36은 형세가 여의치 않다고 보고 최대한 버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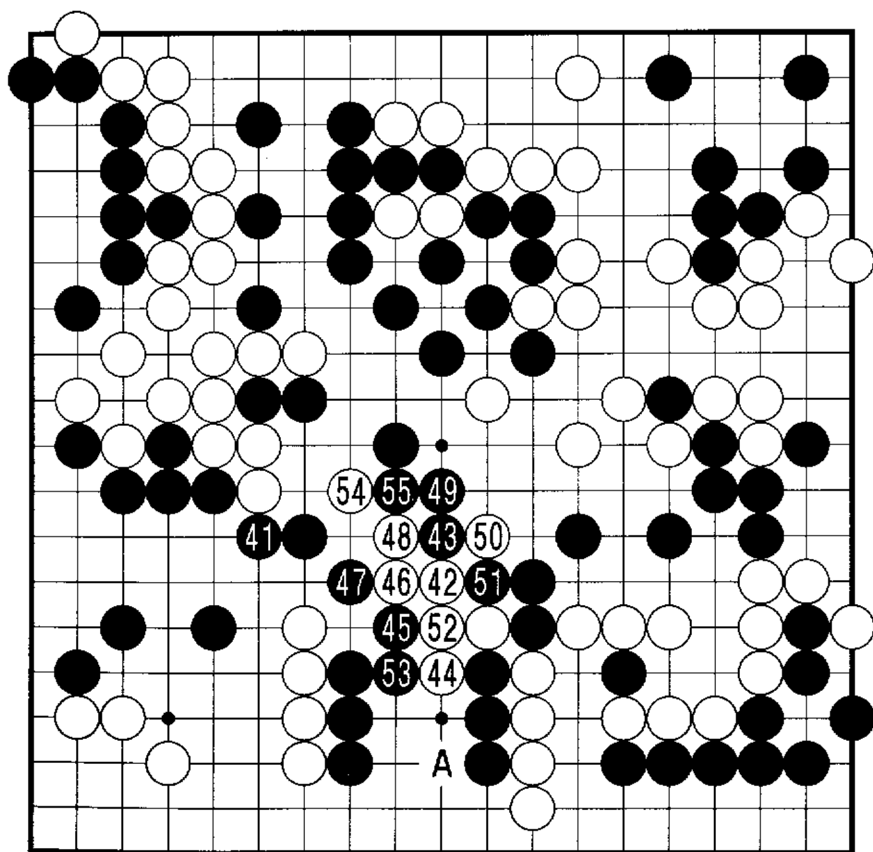
흑37로는 흑40에 두고 백A 때 37로 두는 것이 수순이다. 백38·40이 혼신의 반격이다.



제4보(141~155)

백50이 패착. 백50으로는 51로 두고 흑이 50으로 받을 때 백A에 붙이는 것이 최선이다. 흑53이 상대의 자충을 추궁하는 정확한 응징으로 백은 55에 이르러 패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155수 끝, 흑 불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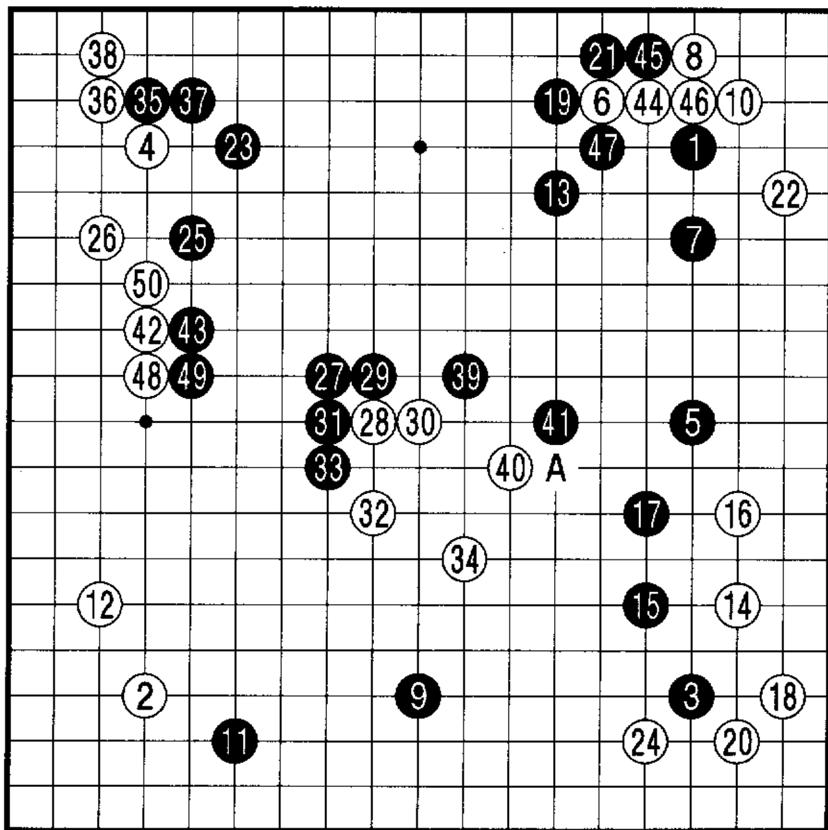


제2회

응창기배 준준결승전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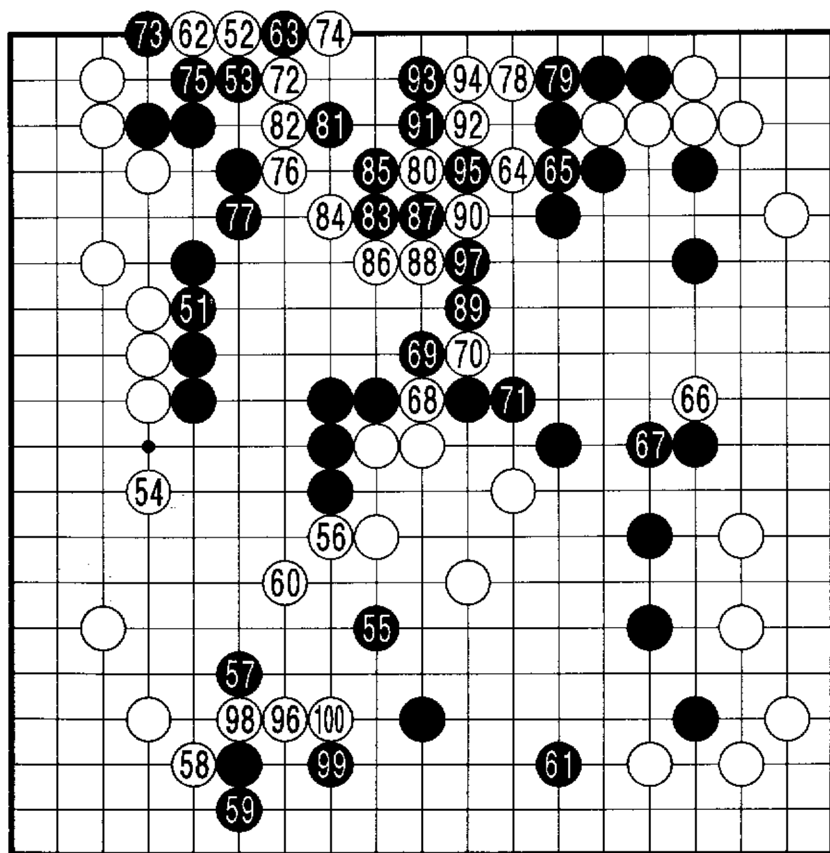
흑23으로는 우하귀를 막고 싶다. 백 40은 A가 정수. 흑41이 절호점으로 포석은 흑의 성공이다.



백 九단 서봉수
흑 九단 다케미야 마사키
1992. 8. 1 힐튼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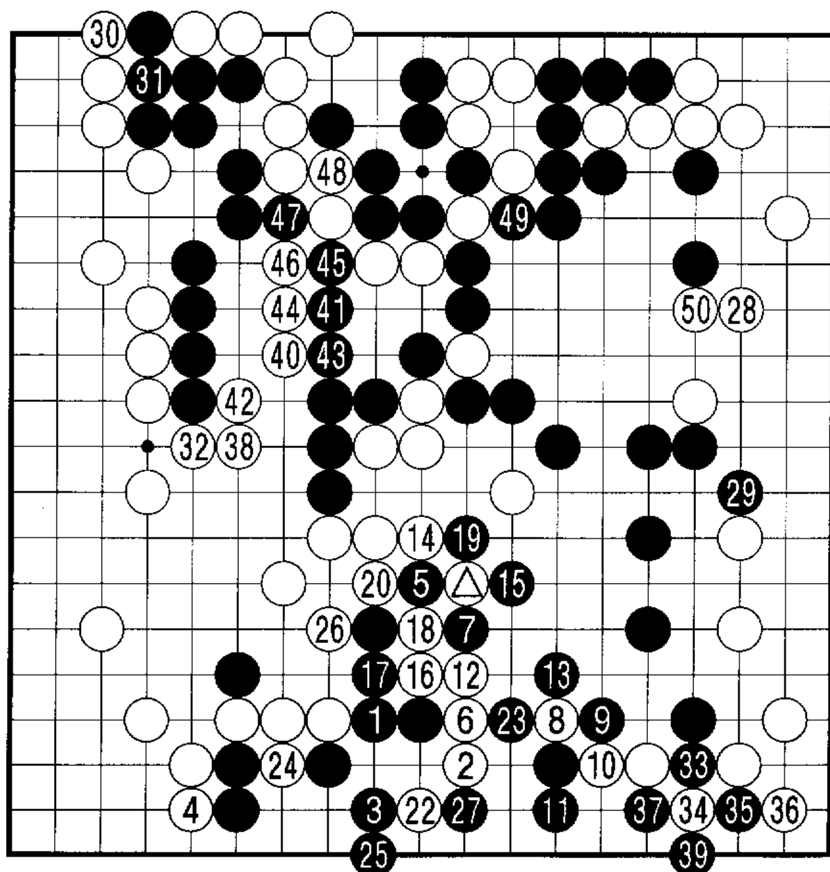
제2보(51~100)

백62 때 흑63으로는 72에 늦출 곳이다. 백64 이하 흑71까지 선수활용한 후 72로 끊어서는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이하 흑95까지 패가 되었는데 백으로선 꽃놀이 패나 다름없다. 백96·98로 돌파해서는 백이 약간 유리한 국면이다.



제3보(101~150)

백2로는 28에 둘 곳이다. 흑3이 예리한 반발로 이하 흑11까지 백으로선 절망적인 국면이다. 흑15가 통한의 패착. 흑15로 18에 두었으면 흑승이었다. 백16 이하 26까지 선수한 후 28을 차지해서는 또다시 백이 우세한 국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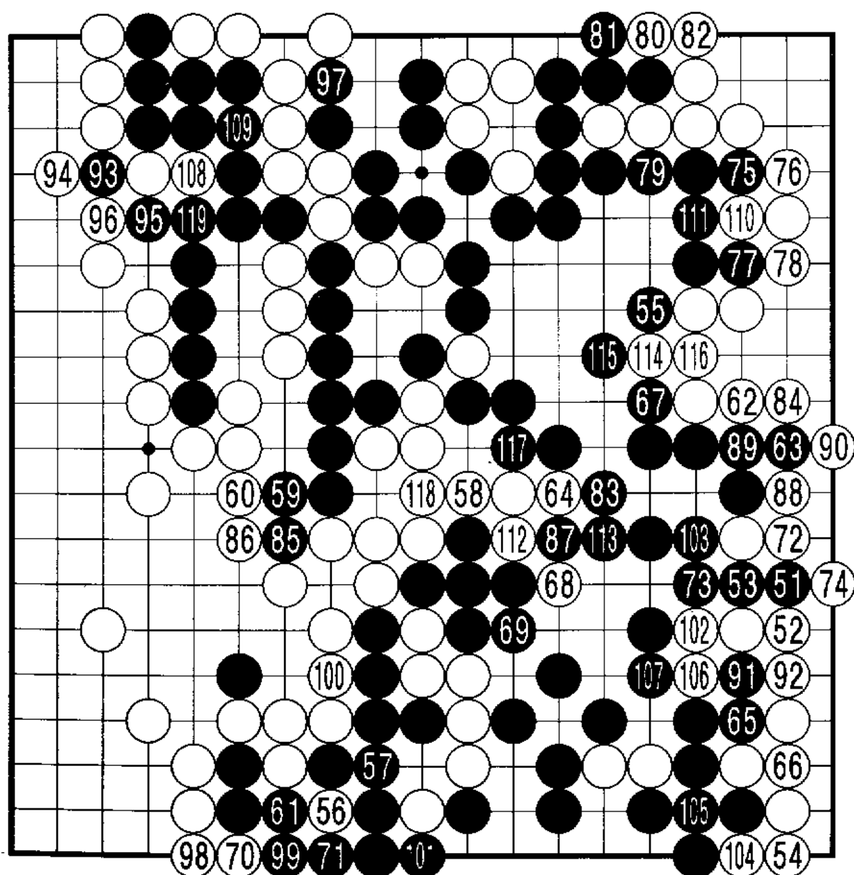


제4보(151~220)

흑의 시간초과로 6집의 페널티가 적용됨으로써 흑의 9점승으로 결정됐다.

220수 끝, 백 9점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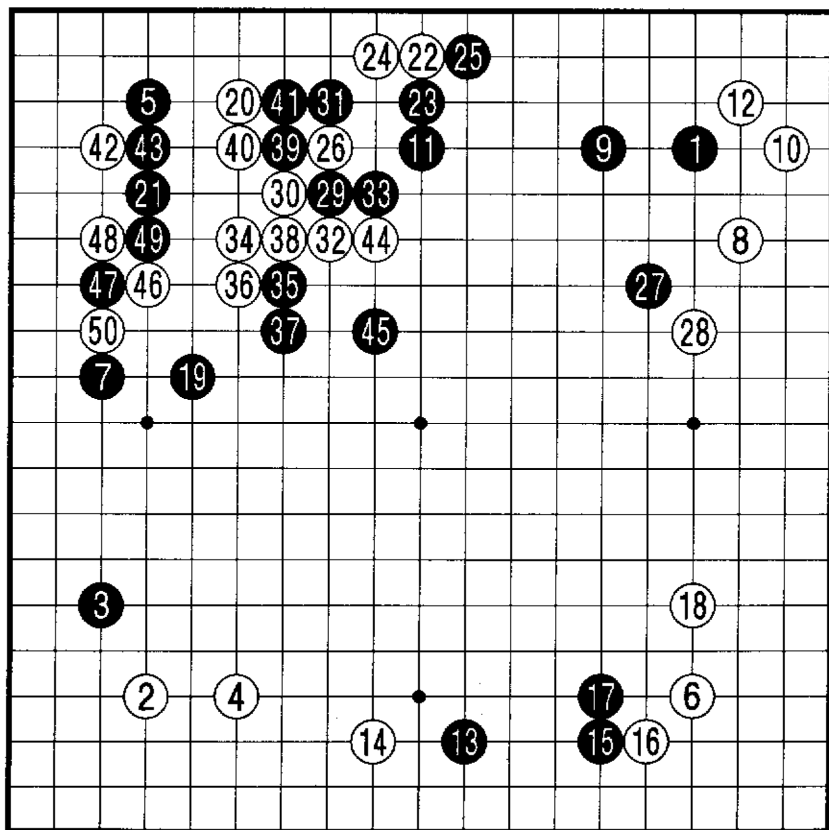
120 … 93



응창기배 준결승3번기 제3국

제1보(1~50)

흑19는 빛나는 감각이며 흑39는 공세를 위한 시급한 자리이다. 백42는 지금이 타이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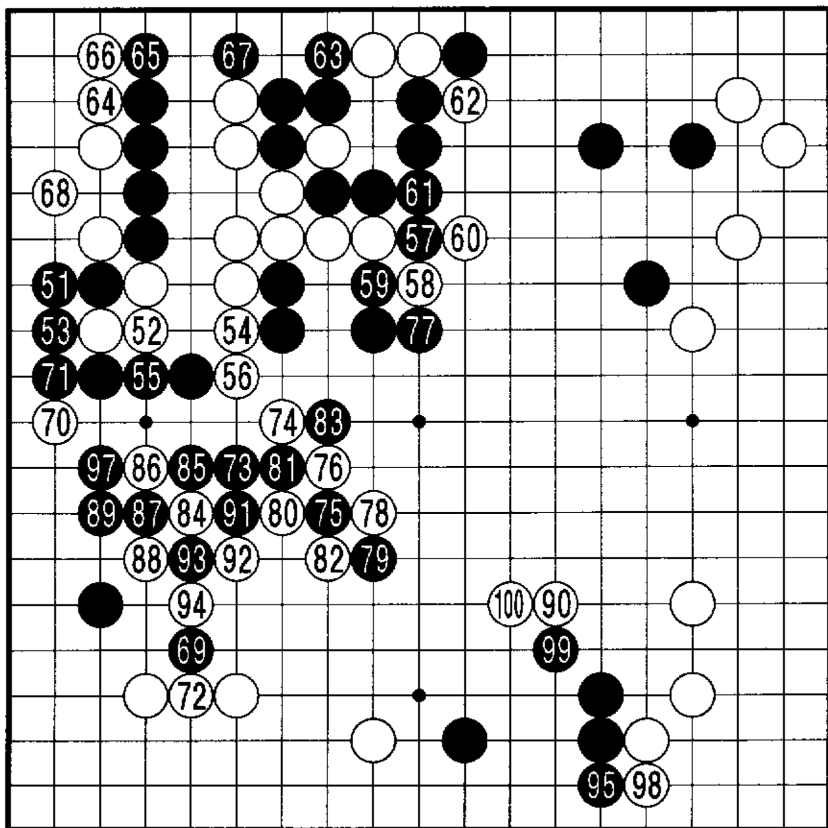


백 九단 서봉수
흑 九단 조치훈
1992. 11. 27 힐튼호텔

제2보(5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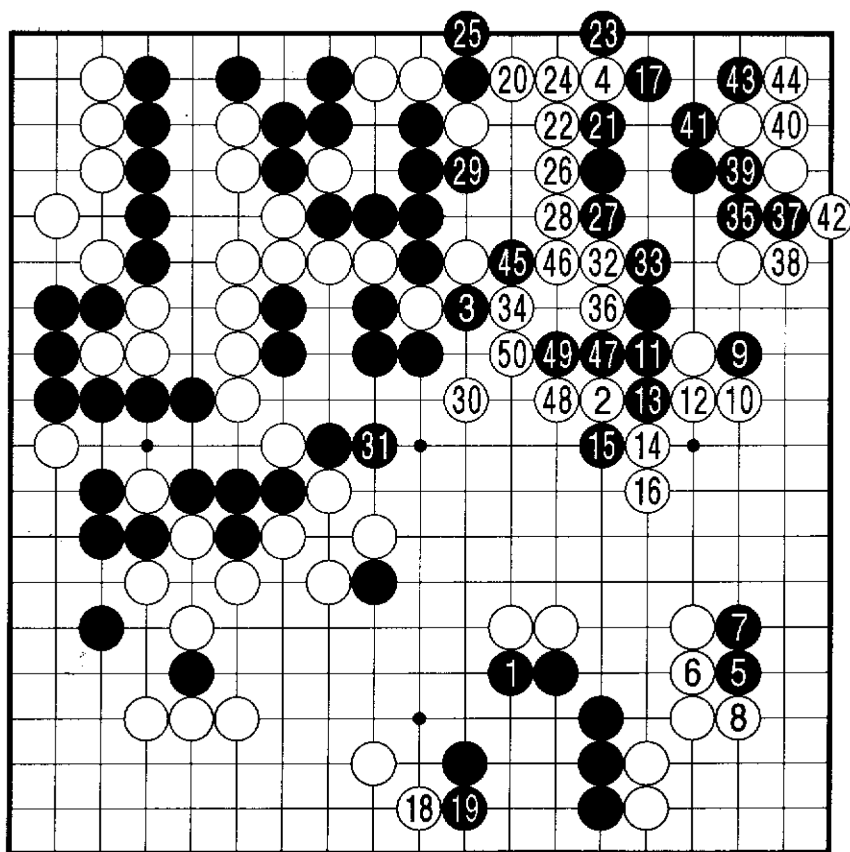
백56까지의 결말은 피차 호각의 갈림이다. 백62는 시기상조. 흑63이 백의 의표를 찌른 일착이다.이하 백68까지 삶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아직도 귀는 패맛이 남아 있다. 백70은 시기적절한 타이밍. 흑73은 공격의 급소. 백76 때 흑77이 성급한 단속이다. 흑77로는 78로 뻗을 자리이다. 흑83까지의 바꿔치기는 백이 기분 좋다. 백86은 흑87과 교환되어 손해이다. 백86은 87로 둘 곳이다.

⑯…⑭



제3보(101~150)

흑9는 의문의 응수타진. 이하 백16까지 우변이 크게 굳어져서는 백승이 굳어진 모습이다. 백20은 확신에 찬 반발. 백30이 맥점으로 백34까지 안정에 성공한 모습. 백38 때 흑41의 후퇴는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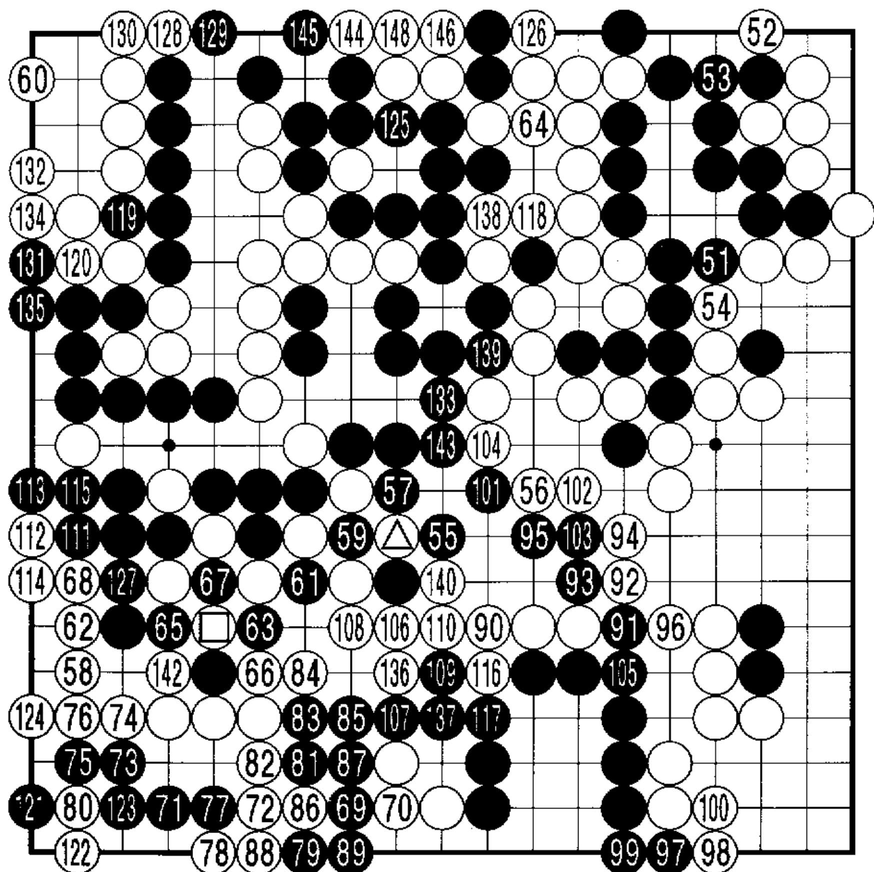


제4보(151~248)

백54는 승리를 확정짓는 수. 백58의 사점에서는 백이 반면으로도 남는 형세이다. 이후 흑이 시간 벌점(2집)까지 당해서는 백의 5점승으로 결정됐다.

248수 이하 줄임, 백 5점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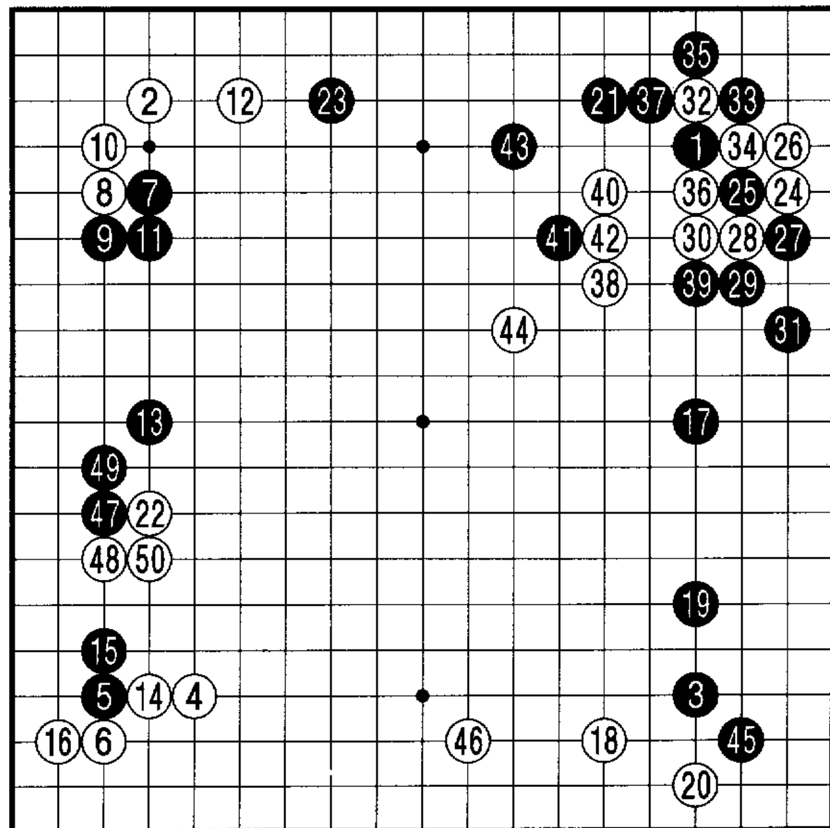




응창기배 결승5번기 제5국

제1보(1~50)

흑23은 8집의 덤을 의식한 적극적인 전법이다. 백44까지는 정석적인 진행으로 쌍방 불만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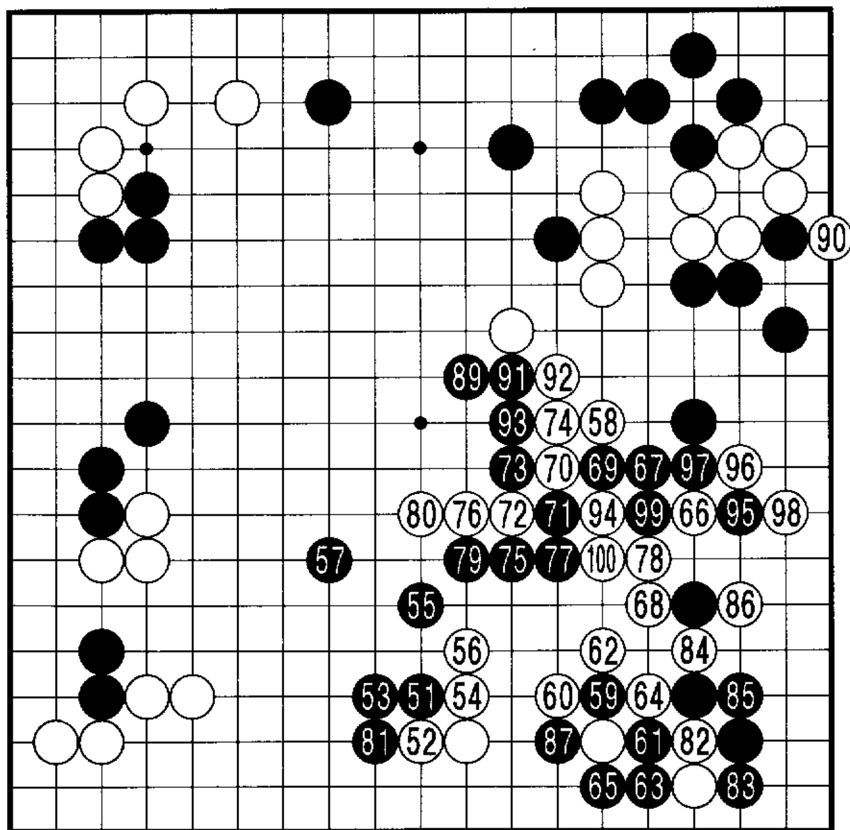


백 九단 오다케 히데오
흑 九단 서봉수
1993. 3. 9 하얏트리젠시 호텔

제2보(51~100)

백58은 빛나는 감각이다. 흑59는 의문의 붙임. 흑61 때 백62가 적절한 반발이다. 백66이 통렬한 침공. 백82가 회심의 일착으로 우세를 확립하는 수이다. 흑89는 처절한 승부수. 그러나 백90이 침착한 응수로 별무신통인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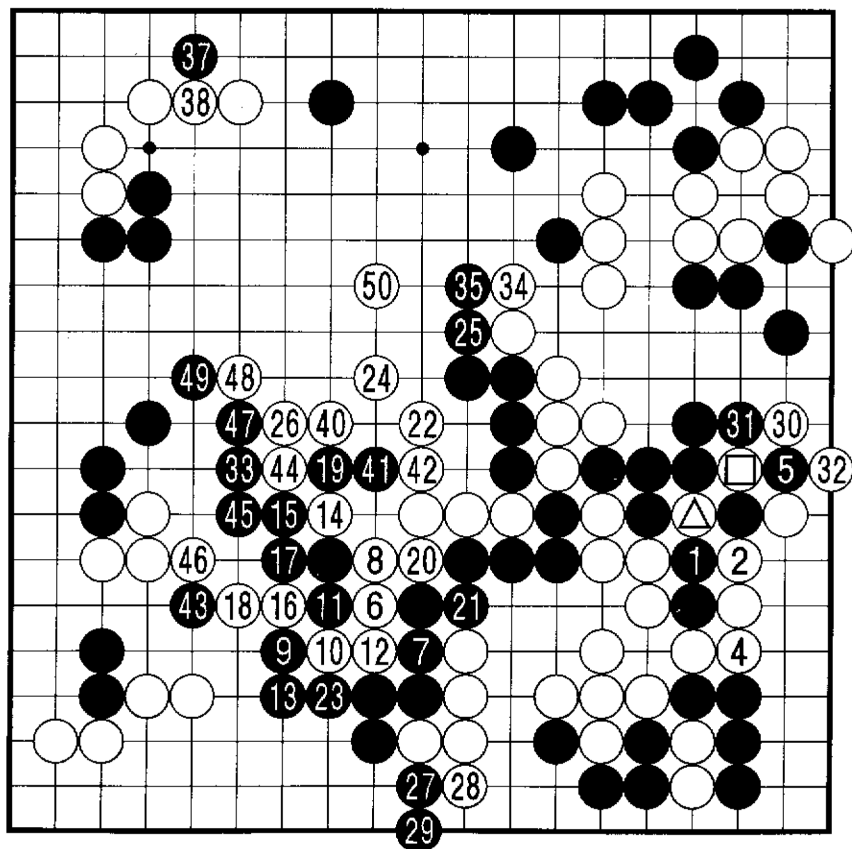
88 … 59



제3보(101~150)

흑5 때 백6이 통렬한 급소일격이다. 백10 때 흑11이 기민한 활용이다. 백24는 안전을 기한 것이지만 40으로 붙이는 것이 더욱 좋았다. 흑33은 필사의 승부수.

❸···△ ㊱···□ ㊴···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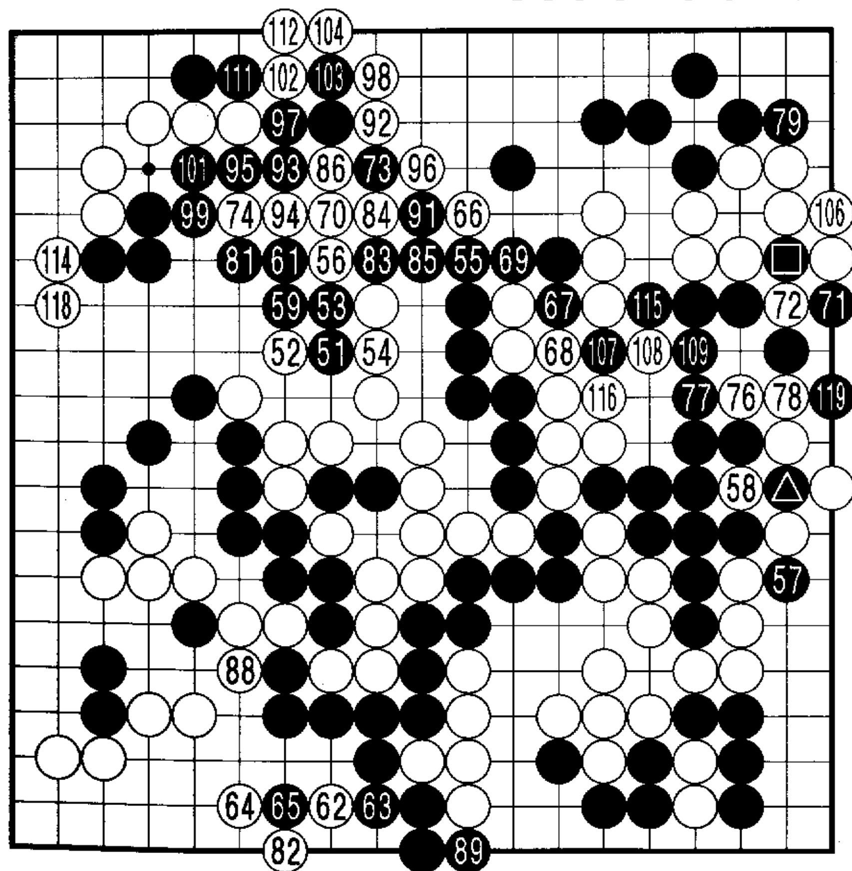
제4보(151~219)

백66 때 흑67이 민첩한 수순이다. 흑81 때 백82가 패착. 백82로 85에 호구쳤으면 백승이다. 흑83에 끊어서는 드디어 역전이다. 하변 흑 대마는 약점이 남아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백114, 118은 던질 곳을 찾은 수이다.

219수 끝, 흑 불계승

⑥⓪ ··· ● ❼❺ ❽❼ ⑩❺ ⑪❸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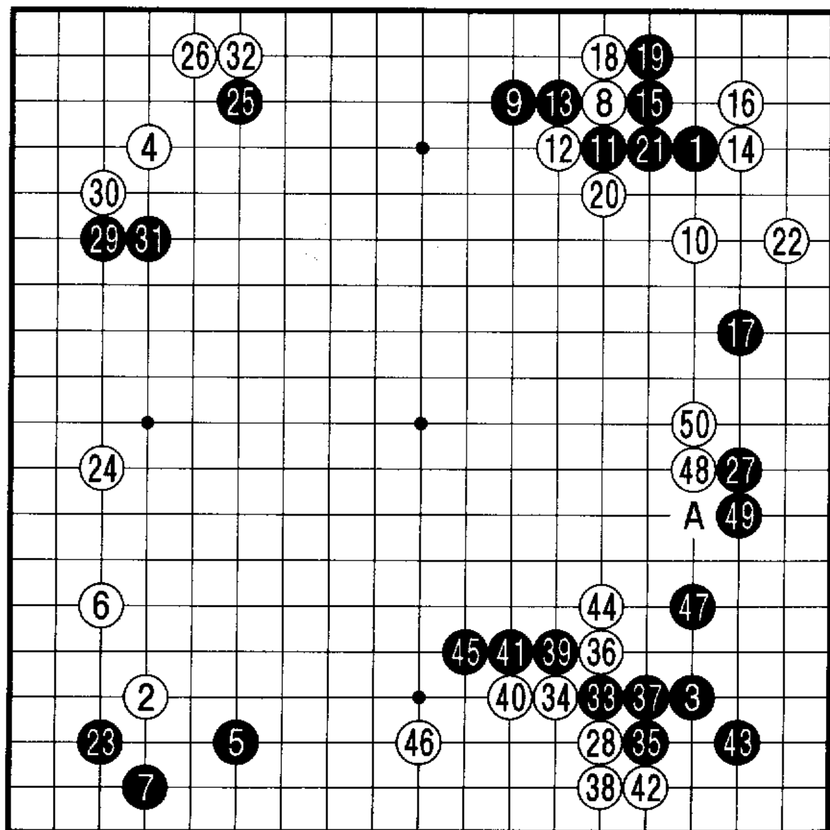
⑧⓪ ⑨⓪ ⑪⓪ ⑪❼ ··· ⑦② ⑩⓪ ··· ❼❸



제3회
진로배 세계바둑대회 제10전

제1보(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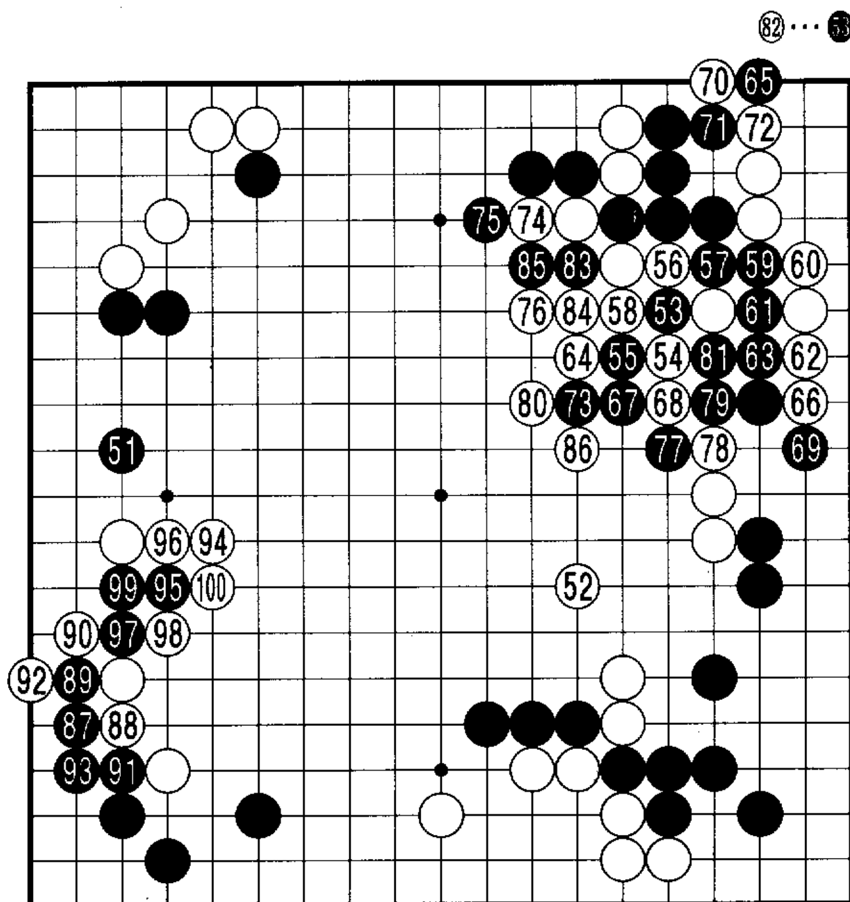
흑27은 31로 걸치는 것이 보통이다. 백28 때 흑29로는 우하귀를 받을 곳. 백32까지 흑으로선 별무신통이다. 흑33·35는 적절한 이단젖힘이다. 흑49는 패기 부족으로 A에 젖히는 것이 좋다.



백 九단 요다 노리모토
흑 九단 서봉수
1997. 1. 31 힐튼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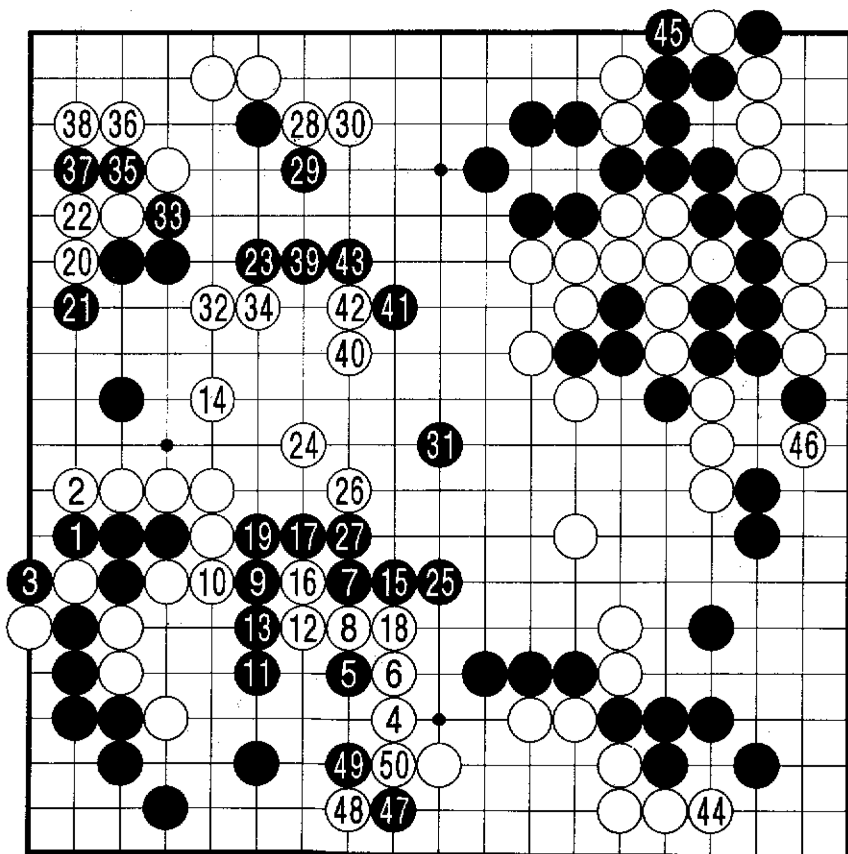
제2보(51~100)

흑77은 패착이나 다름없는 수. 흑77로는 80으로 뻗는 한수이다. 백86까지 백이 우세를 확립한 모습이다. 흑95는 비세를 의식한 강수이다.



제3보(101~150)

백4로는 6에 둘 곳이다. 백8도 25에 둘 자리이다. 흑25까지 진행되어서는 흑이 미세하게 추격한 모습이다. 그러나 백28·30에 손이 돌아와서는 여전히 백이 우세한 국면. 흑41로는 44에 막는 것이 크다.



제4보(151~274)

흑53 때 백54가 대완착이다. 백54로는 55에 이을 곳이다. 백64가 패착. 백64로는 66에 두어 흑 석점을 잡을 곳이다. 흑65 이하 73까지 백 석점이 잡혀서는 역전이다. 흑105는 잘못된 보강. 백106으로 112에 끊었으면 패가 된다. 흑107로 보강해서는 흑승이 결정적이다.

274수 끝, 흑 반집승

